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 학위논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신문보도 내용분석

- 성편향성을 중심으로 -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문 영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신문보도 내용분석
- 성편향성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기 한

이 논문을 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문 영

문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위 원 장 _____ 임 충 훈

부위원장 _____ 이 충 근

위 원 _____ 김 기 한



국 문 초 록

문 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신문에 나타난 선수와 관련된 보도에서 여성선수와 남성선수의 보도에 양/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올림픽의 본질에 맞는 미디어의 방향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올림픽 헌장(IOC, 2017)에 따르면, 올림픽은 평등과 자유를 위한 범세계적 문화 축제이며, 어떠한 차별도 없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으로 건강한 가치를 끌어내는 이벤트여야 한다.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올림픽을 외모지상주의, 선정주의, 영웅주의 등과 같은 각종 드라마틱한 요소를 부각하여 올림픽 정신을 함께 고찰해야 할 대중들에게 오락성만을 부각해 보도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편협한 보도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올림픽 속 ‘성별에 따른 차별’을 주제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국내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종합일간지인 ‘경향신문’, ‘한겨레’ (이상 진보) 및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상 보수)의 남녀선수 관련 글기사를 분석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첫째, 성별에 따른 기사의 빈도수를 비교하였고, 둘째, 성별에 따라 적용된 프레임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기술중심 혹은 비기술중심), 셋째, 여성선수 관련 기사가 대부분 ‘여성적 종목’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현대사회에 만연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로써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진보신문과 보수신문 간에 여성선수를 주제로 한 보도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정치적 의제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했다.

주요어 : 올림픽, 젠더, 여성스포츠, 성별 보도량, 내용분석, 성 편향성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미디어와 성 편향성	6
1. 한국 문화 속 성 역할 고정관념	6
2. 언론에 나타난 성 편향성	11
1) 신문 보도	11
2) 텔레비전 보도	15
3) 온라인매체 보도	20
3. 스포츠보도에 나타난 성 편향성	26
제 2 절 언론의 보도프레임과 여성스포츠경기 보도	35
1. 언론에서 프레임의 개념과 종류	35
2. 여성스포츠경기 보도프레임	40
1) 기술중심	43
2) 비기술중심	44
3. 올림픽 보도프레임의 특수성	44
제 3 절 스포츠 종목별 젠더유형	52
1. 종목별 젠더유형을 판단하는 기준	52
2. 남성적, 여성적, 중성적 스포츠	57
제 4 절 언론의 특성에 따른 여성보도 차이	60
1. 종합일간지와 스포츠신문에서 여성보도	60
2.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에서의 여성보도	62

제 3 장 연구방법	66
제 1 절 연구 모형	66
제 2 절 실험 설계	68
제 3 절 변인 측정	71
1. 프레임의 선정	71
2. 동계올림픽 종목의 젠더유형	72
제 4 장 연구결과	75
제 1 절 연구문제1의 검증	75
제 2 절 연구문제2의 검증	76
제 3 절 연구문제3의 검증	80
제 4 절 연구문제4의 검증	82
제 5 장 결론 및 제언	83
제 6 장 참고문헌	86

표 및 그림 목차

표1. 스포츠종목의 젠더유형 분류기준	58
표2. 기술/비기술중심 측정요소 및 분류표	70
표3.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별 젠더유형 분류	71
표4. 성별로 구분한 남녀기사의 빈도수	73
표5. 기술점수와 비기술점수를 이용한 ICC	58
표6. 성별에 따른 기사의 프레임 유형차이(1)	70
표7. 성별에 따른 기사의 프레임 유형차이(2)	71
표8. 기사 내 성별과 스포츠종목유형의 관계	73
표9. 성별과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	73
그림1. 종목별 선수 참가율	47
그림2. 올림픽에 참여한 각국 지도자들의 성비	48
그림3. 올림픽에 참여한 각국 경기위원의 성비	49
그림4. 연구모형: 신문기사 내용분석 과정	6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선 사회문화적 교류의 장이며, 체육을 통한 교육적 가치를 다시 한번 고찰할 수 있는 전 인류적 축제이다.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지구촌 축제를 총괄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헌장에 자신들의 가장 첫 번째 사명과 역할로써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윤리 발전 및 올바른 운영을 지지하고 장려하며, 스포츠에 있어 페어플레이 정신 확산과 폭력 금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다’고 적었다. 또한 헌장의 7번째 조항에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과 조직에서 스포츠에 있어 여성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한다(IOC, 2017)’고 명시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올림픽위원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역대 최다 여성종목과 혼성종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성신문, 2018).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스포츠 미디어는 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스포츠와 여성선수 관련 보도에 있어 건전한 관람문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중에게 올림픽이 지향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은 물론, 경기를 관람하는 올바른 시각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건강한 스포츠 관람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하는 스포츠 미디어가, 드라마틱한 요소들로 지나치게 오락적이며 편파적인 보도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녀간의 평등은 오랜 시간 주장되어 왔고, 역사적으로 스포츠를 비롯한 다수의 영역들에서 여성은 차별과 박해를 받아왔지만, ‘평등함’과 ‘공정함’을 이념으로 하는 올림픽에서만큼은 성차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은 단지 특정 국가나 개인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지구촌이 함께 소통하는 ‘소통의 장’이고, ‘남녀평등’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즐기는, 어마어마한 시청자를 보유하고 그만큼 파급력도 큰 이벤트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리더들이 앞장서서 남녀평등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러한 역할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앞서 말했듯, 올림픽 현장에서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있어 여성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는, 올림픽이 전 인류가 시청하는 큰 지구촌 축제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있어서의 평등과 자유 이념의 강조가 세계 문화 곳곳에 만연한 여러 분야에서의 불평등과 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올림픽이 갖는 의의는 개인적인 차원의 단순한 유희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전인류적 가치, 즉 ‘인권 신장’에 대해 고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여성선수가 늘어날수록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확대될 것이고,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는 더 평등해지고, 건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장미란이나 이상화, 김연아 등과 같은 여성선수들의 훌륭한 퍼포먼스 덕분에 관련 종목을 배우고자 하는 여성 및 청소년들이 늘어났으며, 운동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는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형성해가고 있다. 올림픽은 매 회 개최를 거듭하면서 여성이 참가하는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림픽에 참가한 여성선수들이 기록 및 성과에서도 늘어난 참가율에 걸맞게 훌륭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와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노력을 더하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미디어의 시각은 옛날의 수준과 별 다름이 없다.

현대 우리 사회의 스포츠 미디어는 대체로 여성스포츠를 선정적이며 유희적인 오락물을 바라보듯이 표현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여자는 여자답게’ 혹은 ‘남자는 남자답게’와 같이 생물학적 성과 이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성적인 역할을 단편적인 프레임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별에 따른 역할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미디어의 행태는 우리가 자주 접하

는 신문의 사진기사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스포츠 선수가 경쟁적인 스포츠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전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이 여성 스포츠선수의 경기가 끝난 후 승리에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나, 눈물을 닦아주는 남성 코치의 품에 안겨있는 사진 등과 같이 여성선수를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 혹은 여린 이미지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듯한 프레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반대로 남성선수의 경우에는 여성선수와 같은 종목의 경기이더라도, 남성성을 부각하기 위해 전투장면을 연상하는 듯한 아찔한 경쟁의 순간이나, 활동적으로 경기에 임하며 영웅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듯한 프레임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자다운’ 혹은 ‘남자다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것은 사진기사뿐만 아니라 글기사에서 또한 쉽게 볼 수 있다. 글 기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프레임을 ‘미녀스타’, ‘육감적 몸매’, ‘흑진주’, ‘처녀출전’, ‘엄마의 투혼’, ‘국민여동생’ 등의 단어를 사용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서의 모습보다는 ‘여성’ 으로서의 특징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외모주의, 선정주의, 가족주의, 소인화하기 등 성차별적 보도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을 다수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남성선수 묘사 시에는 영웅주의, 능력주의, 일등주의가 자주 등장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인쇄매체에서 보도되는 남성과 여성선수들의 보도방식에는 이러한 프레임의 차이뿐만 아니라 보도된 기사의 중요성 면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대표적인 인쇄매체인 신문에서 기사의 중요도는 전체 지면중 어느 면에 위치하는지, 또한 위치한 면 내에서도 어느 높이에 위치하는지, 혹은 얼마나 크게 게재되는지에 따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성선수 관련 기사는 작게 혹은 지면의 변두리에 게재하거나, 남성선수 관련 기사는 크게 혹은 지면의 정가운데 위치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전통적인 신문에서는 글이나 사진 기사의 게재 방식 또한 프레임에 못지 않은 성적 불평등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신문의 경우 각 주제별로 섹션이 나누어져 있어 지면과 배치에 따른 위

치적 중요도를 산출해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위치적 중요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불평등의 또 다른 예로는, 여성선수의 전투적인 모습이 아닌 여성성이 강조된 사진기사와 남성선수의 전투적이고 용맹한 영웅적인 모습은 신문의 주요 면에 대형으로 게재하고, 남성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나 여성선수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열심히 경쟁하는 사진 등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 사진들은 주요 면이 아닌 기타 면에 작게 게재하거나, 또는 이를 드라마틱하게 미화하거나, 아예 신문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언론사는 여성선수는 여자이기 때문에 ‘미녀여제’, ‘국민요정’, ‘육감적 몸매’와 같이 여성성이 부각되는 사진을, 남성선수는 강인한 남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용맹한 사진을 실는 것이 독자들의 구미를 당긴다고 판단하고, 이에 맞게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신문뿐만 아니라, 최근 2016 리우올림픽 스포츠 텔레비전 중계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올림픽 중계의 경우 까다로운 필터링을 거쳐 중계자의 코멘트를 내보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 채널이라고 하는 지상파에서조차 별다른 필터링 조치 없이 왜곡된 성차별적 발언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성선수들의 묘사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얼굴 평가와 몸매 강조, 여성성 부각, 기혼 여성선수에게는 선수 본인의 정체성보다는 가족의 구성원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등 ‘운동선수’로 다루어지지 않고 ‘여성’으로서 대표되는 경우가 다수였다는 점이다. 2016 리우올림픽 당시 동아일보와 MBC 뉴스 데스크에서는 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흑인 여성선수를 향해 ‘흑진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여성을 진주에 비유한데다가 선수의 기량을 설명하는 데에 불필요한 피부색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앞서 언급된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미디어가 인종이나 성별의 ‘다름’을 차별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볼 수 있었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흥미위주, 상업성 위주의 구시대적 저널리즘이 인기

를 끌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보도행태를 지양하고, 올림픽즘의 ‘평등함’과 ‘공정함’ 정신에 부합하여 인종적, 종교적, 성(性)적 다름 앞에 평등한 올림픽 보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 정신 ‘도전’에 의미를 두는 것이지,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한 능력의 ‘차이’를 겨루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신문에 나타난 선수와 관련된 보도에서 여성선수와 남성선수의 보도에 양/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올림픽이 지향하는 평등과 자유 이념에 부합하는 스포츠 미디어의 발전 방향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앞서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 중, 남녀선수의 보도에 양/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으나,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의 경기에서는 성별에 따른 보도 불평등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지 않는 시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여러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보도에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밝히고, 차별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밝힌다. 둘째, 남성선수와 여성선수 보도에 차이가 있다면, 올림픽과 같은 특수상황에서 또한 동일한 차별이 동일한 정도로 발생하는지를 밝힌다. 셋째, 진보적 성향 미디어와 보수적 성향 미디어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성 차별적 프레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국내 스포츠 미디어의 성차별적 보도행태를 밝혀서 ‘다름’은 인정하되 ‘차별’은 없는 공정한 미디어 문화를 만들고, 시대적 트렌드와 올림픽 이념에 부합하는 선진적 스포츠 저널리즘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미디어와 성 편향성

1. 한국 문화 속 성 역할 고정관념

한국인이 중시하는 가치들인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심, 연령과 세대에 따른 위계질서, 남녀 영역의 엄격한 구분과 조상숭배의 의례, 이 외에도 가족의 계승과 상속에 있어 부계에 대한 지나친 강조 등은 모두 유교가 우리 삶에 깊이 파고 들은 흔적 때문이다(문옥표, 1996). 그러나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교가 한국인의 일상적 생활 문화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조선조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허홍식 1981; 최재석 1983; 이효재 1990; 김종택 1990; 신용숙 1991; Deuchler 1992; 문옥표, 1996에서 재인용). 고려시대 까지만 해도 남녀 간의 교류가 자유로웠으며 여성들의 재혼에 엄격한 규제가 없었고, 왕실이나 귀족 계층에서도 개가한 부녀가 전 남편의 자녀들을 데려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조금도 부자연스럽거나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여성들의 생활 영역은 점점 더 집안 내로 제한되었고, 흔히 행해지던 여성들의 절 방문이나 무당집의 출입 또한 금지되었다(김종택, 1990; 문옥표, 1996에서 재인용).

유교는 본래 부계 중심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성리학의 음양론을 기본으로 남녀의 결합을 모든 인간관계의 뿌리로 생각하여 부자 관계나 군신 관계도 모두 바른 남녀관계에 기초한다고 생각하였다(박용욱 1988; 이배용 1996; 문옥표, 1996에서 재인용). 또한 이러한 남녀관의 관계 또한 위계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남성은 하늘(天)에 해당하고 여성은 땅(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은 유교사상에서 우주의 질서이며 자연의 섭리와 같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

다. 이러한 지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는 사회적 무질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기 때문에, 유교적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남녀를 분리하여 교육시키고 부부의 역할과 기능을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남성은 바깥일을,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명백히 구분하였다(문옥표, 1996). 이러한 유교사상의 남녀 구분은, 여성의 지위를 평가할 때 상반된 두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라든가, ‘양은 존귀하고 음은 비천하다’ 와 같은 논리를 남성과 여성에 적용하여 남성은 하늘이나 양으로, 여성은 땅이나 음으로 대비시켜 철저한 남성우월주의를 보여주는 반면, 다른 한 편으로는 유교 문화에 나타나는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는 특성이 음으로 대변되는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으로 대변되는 양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겨, 여성도 남성과 같이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후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매우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유교문화가 보편화된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여성의 열등한 지위가 자연의 섭리로서 정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의 여성들은 자신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자신보다 우월한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며, 결혼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그 뒤를 잇는 아들에게 복종할 것이 요구되었다(문옥표, 1996). 급격히 저하된 여성의 지위는 사회적 차원에서 주자가례를 시작으로 삼종지도와 칠거지악, 법적 규범으로는 여성의 재가 금지 및 재가녀자손금고법 등을 통해 여성의 활동 반경을 제한했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법적 제재장치를 통해 여성들은 유교 질서에 동화되어 졌다(강혜경, 2009). 이러한 여성의 활동에 있어서의 제한은 당시의 의복 스타일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려시대 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외출복에 여러가지 스타일이 존재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 여성의 집 밖 출입이 크게 제한됨과 동시에 여성의 외출복 또한 쇠퇴하였으며 특히 조선시대 중기 말에는 외출시에 얼굴을 가리는 장옷이나 쓰개치마 등이 새로운 복장으로서 소개되었다(유희경, 1981).

유교사상은 여성의 또 다른 측면을 억압하기도 했는데, 유교적 세계관에서 여성은 성욕을 제어해야만 하는 존재로 여겨져 여성이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다(박용옥, 1988). 남성에게는 일부다처가 용인되었던 것과 달리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을 취한다 해도 상대 여성을 시기할 수 없었고, 만약 이를 시기한다면 유교적 여성상에 배치되는 ‘색녀’로 낙인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주체가 아닌 도구적이며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강혜경, 2009). 특히 재혼 여성의 자손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재가녀자손금고법과 같은 법적 제재 조치는 조선 사회에서의 여성을 아내의 지위이기 보다는 어머니의 지위로 유인함으로써 여성은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서가 아닌 부계의 가부장적 체계를 확립하는 도구 혹은 매개적 존재로서 의미화 되었다(이지영, 201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유교사상이 만연했던 조선시대의 여성은 성리학적인 남녀의 구분과 이로 인한 차별적인 인식 때문에 교육에서의 배제는 물론 아내로서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존재의미 부여, 여성으로서의 성적 욕망의 금지 및 억압을 받은 존재로 해석될 수 있다(강혜경, 2009).

조선시대의 여성이 남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에는 교육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 이유는 유교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주체가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를 애초부터 배제 시켰기 때문이고, 여성을 학문하는 남성을 보조하기 위해 가정사를 돌보는 주변적인 존재이자 보조적인 존재로 형상화하기 때문이다(조경원, 1988). 당시 여성들에게 허용되던 교육은 어떻게 해야 순종적이고 유교적인 여성이 될지에 대해 부모로부터 눈으로 보고, 듣고, 따라함으로써 몸으로 익히는 실기 교육이 주된 것이었다(조혜정, 신옥희, 이인호, 한왕상, 1986). 이는 여성이 학교 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교육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인재로서보다, 가족생활에 필요한 태도나 기술을 익히는 존재로서 의미부여 되었음을 잘 설명해주는 예인데(강혜경, 2009), 여성이 받는 교육은 적극적인 학문의 가르침보다도 주로 금지나 통제, 특히 성리학적 가치를 극단적으로 실천한 인물을 장려하고 포상하는 방법 등으로 교육되었다

(이숙인, 2006).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유교가 강하게 작용했던 조선시대에는 체육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 존재했다면, 조선시대의 체육교육에서 여성은 어떻게 배제되었을까?

조선시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시대였다. 고려 시대는 불교에 의한 건국이념과 함께 개인적 성향의 건강관이 지배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체육이 융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지만, 조선이 유교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정치·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조선의 체육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장성수, 2007).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지배층으로부터 일반 민중에게 전달되어 체육이라는 활동이 간이화되고 교육적인 측면보다 유희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면서 사회저변으로 확산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조선이 완전한 유교적 국가로 성립되면서 공식적인 체육은 거의 수행되지 못했으나, 이 시대의 체육은 지금까지의 체육과는 다르게 놀이 문화를 대표하는 시대로서 생각할 수 있다(장성수, 2007). 조선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극명히 구분되고,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남성들이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여성의 저조하고 수동적인 사회 참여는 여성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율 또한 낮아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곽정현, 이선희, 2014). 따라서 조선시대 여성들의 체육활동은 보다 유희성을 띠는 놀이의 형태로 널뛰기, 그네뛰기, 윷놀이, 투호 등으로 그 맥을 이어왔으며, 그 밖에 공동체적인 민속경연이 여성 스포츠 활동의 초기 모습으로 있었다(곽정현, 이선희, 2014). 이렇게 초기 여성의 스포츠 활동이 오락 활동의 위주로 유지되었던 이유는 시대적으로 지배적이었던 유교사상이 신체활동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나현성, 1985).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근대적 체육을 접하게 된 것은 1892년 이화학당의 선교사로 부임한 페인이 교과과정에 체조를 편성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박영일, 1998). 폭넓은 지식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교사의 노력으로 초기 우리나라 여성체육은 이화학당으로부터 발전되었다(이현정, 2010). 이화학당의 학생들에게 체조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운동을 통한 전인교육을 통해 오랜 전통과 구습에

서 벗어나고 여성으로서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이현정, 2010). 그러나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유교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교육과 체조의 도입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이현정, 2010).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여자가 걸을 때 발꿈치에서 발끝까지의 길이 이상 발을 떼는 것을 상스럽다고 생각할 만큼 엄격하게 여성의 걸음걸이를 다스리는 시기였는데, 여성들이 체조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다리를 벌리며 뿔박질을 하는 것은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부덕하게 생각되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박영일, 1998).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파문에도 불구하고 이화학당은 체조를 정식교과목으로 채택함으로써 근대적 여성체육의 모태가 되었다(이현정, 2010).

광복 이후에는 1948년 런던올림픽에 박봉식, 1952년 헬싱키올림픽에 최명숙, 1960년 로마올림픽에 이학자와 유명자가 참가하는 등(대한올림픽위원회, 1996) 한국의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 경기대회에도 나가 한국 여성체육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여전히 그 당시의 국가와 사회 경제적 상황, 교육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인식 등에 있어 여성의 지위와 인지도는 매우 낮았던 실정이었다고, 여성선수들의 출전조차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이현정, 2010). 이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대한 남성들의 우려와 더불어 역사적인 편견과 남성주의적 사회 풍조,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종교활동 등이 여성의 체육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오윤선, 2000).

이처럼 20세기 초반까지 여성들은 스포츠 참가에 있어 사회적으로 심한 차별과 반대에 부딪혀왔다(홍승후, 2016). 그러나 1967년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973년 탁구를 비롯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여자 핸드볼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LA올림픽 이후로 멈출 줄 모르는 양궁의 메달 소식은 여성 엘리트 스포츠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이현정, 2010). 21세기 현 시점에서 여성들은 단지 올림픽 참가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의 시대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인공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오윤선, 2000).

2. 언론에 나타난 성 편향성

① 신문 보도

여성에 관한 편견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사회적 요소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하나같이 매스미디어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밝히고 있다(Busby, 1975; Pearson, 1985; Beuf, 1974; Kimbell, 1986). 또한 신문이라는 매체는 방송매체보다 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 계층에게 국내외 정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여러 주제에 걸친 사회문제에 관해 토론하게 하는 지식인들의 매우 진지한 소통의 장이었다(김희진, 이수민, 2012). 서양에서조차 뉴스라는 장르는 남성적인 담론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Rakow & Kranich, 1991), 우리 언론의 유교주의적 가부장 중심의 사회질서와 남성위주의 뉴스 생산조직의 구조적 특성들이 더해져 한국의 신문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묘사해왔는지를 탐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고 수적으로 증가하여, 여성에 관한 기사가 양적으로 증가된다고 하여도 기존의 남성적 담론이 저절로 수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김희진, 이수민, 2012).

뉴스의 현실 구성론의 관점에 따르면, 뉴스에 표현되는 성 편향적인 구조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객관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가부장적인 사회질서에 따라 구성된 비대칭적 권력관계의 표상으로 나타난다(김경모, 김연정, 2005). 미디어와 여성 보도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여성의 모습이 미디어에 의해 다소 재현되거나 왜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세은, 김수아 2007). 이러한 프레임의 경향은 특히 뉴스 보도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양적으로는 남성의 보도가 여성의 보도보다 많다는 것(홍승후, 2016), 질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의 주변인으로서 묘사되고(남상우, 권오석, 2008), 이로 인해 주요 지면보다는 주로 생활면의 기사에 치중되는 등 여성의 보도가 연성뉴스 혹은 사적 영역의 뉴스로 취급됨을 알 수 있다(Yang, 1996). 한국여성유권자연맹(1995)은 국내

5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1994년 4월에서 6월 사이 보도된 여성 관련 기사 403건을 분석한 ‘신문속의 여성소외’ 보고서에서, 여성관련 기사의 편집 방향에 대해 신문이 여성문제를 고립화하고, 단순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여성기사의 약 80%를 여성·가정면에 배치함으로써 여성과 다른 공적 영역들이 서로 무관하거나 별개인 것처럼 분리하고 있는 데다가, 대다수의 여성 관련 보도가 사건성 보도기사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여론을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허명숙, 2007에서 재인용). 이는 여성에 대한 신문기사가 기획 및 특집기사로 나오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해 신문이 여성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올바른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보다는 가치판단을 제거한 단순한 사실보도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이 뉴스가 될 때는 권력가나 명망가 혹은 재벌들의 어머니, 아내, 딸의 자격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집의 구조가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도 주장했다(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95).

언론학에서 프레임 연구는 미디어 매체가 뉴스를 전달할 때 지면이나 시간 등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일부 정보를 선택하고 이외의 정보를 배제하는 기능에 주목한다(Entman, 1993).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뉴스는 현실 그 자체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지만(Berger & Luckmann, 1967), 일부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매체의 여러가지 내부적, 외부적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 마련된 일련의 규칙들을 통해 수용자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프레임(틀)을 형성하게 된다(이동근, 2004). 미디어 매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이 연역적 방법 혹은 귀납적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이 프레임의 형태가 가변적일 수 있으나, 일상화된 매체의 보도 관행을 연구한다는 차원에서는 비교적 규격화된 해석 도구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Semetko & Valkenburg, 2000).

여성이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프레이밍 되는 원인으로 일부 학자들은 뉴스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과 현실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제시한다

(김희진, 이수민, 2012). 즉, 미디어에서 여성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취급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유선영, 2003a),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 조직의 구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경희와 강혜란(2016)의 연구를 보면 남성과 여성 언론인의 차이가 양적, 질적으로 나타나는데, 양적으로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여성앵커는 남성앵커보다 뉴스를 적게 전달하고, 화면에 등장하는 빈도가 낮으며, 기자 10명중 여성기자는 3명밖에 되지 않았고, 여성 인터뷰 참여자는 인터뷰 참여자 10명 중 약 3명에 불과하여, 텔레비전 뉴스에서 여성을 ‘양적으로 과소재현’하고 있음을 밝혀주었고, 질적으로는 여성앵커가 남성앵커보다 보도 서열이 낮고 덜 중요한 뉴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남성기자와 달리 여성기자들 중 정치분야를 담당한 여성기자의 비중이 적었고, 남성 인터뷰 참여자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의 등장 비율이 비슷한 반면, 여성 인터뷰 참여자는 일반 시민이 전문가의 두 배 가량 되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여성의 과소재현 현상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도 뉴스의 안과 밖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Fiske(1999)는 뉴스란 사회가 남성적이라고 여기는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남성 수용자를 목표로 남성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남성적인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김희진, 이수민, 2012에서 재인용). 또한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성 편향적 뉴스는 언론사 조직의 구조 자체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남녀 기자의 성별 불균형과 남성 중심적인 문화 등 미디어 생산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김경희, 1998).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통해 뉴스의 성차별적 메시지가 재생산되는 미디어 조직 구조와 성편향성의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뉴스를 생산하는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성비의 불균형이나 남성주도의 성 역할, 남성적 가치관과 시각이 지배하는 뉴스와 그 제작과정에 대한 인식, 보도관행, 남성 위주의 취재보도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이유들이다(김경모, 2003; 김경희, 1998; 김훈순, 1997; Greenwald, 1990; Tuchman et al., 1978; Ziegler & White, 1990). 미디어

가 생산하는 여성상에 초점을 둔 이러한 연구들은 뉴스가 여성을 실제보다 왜곡시켜 묘사하는 정도를 넘어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김경모, 김연정, 2005). 미디어 매체 속 여성문제를 조명하는 선행연구들 중에는 미디어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들의 지위가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이미지가 덜 왜곡될 것이며, 그 결과 미디어 매체의 성편향성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연구들도 있다(Rodgers & Thorson, 2003). 이에 반해, 미디어 조직 구조의 변화 또는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여성의 언론계 진출이 미디어의 성 편향적 보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들도 다수 존재한다(Liebler & Smith, 1977; Tuchman et al., 1978, Van Zoonen, 1988).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늘어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높아진 여성들의 교육수준으로 인해 여권이 시장하면서 뉴스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에 관한 묘사 또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묘사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에 관한 보도가 산술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피상적인 수준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김애라, 2003). 만약, 사회 각 분야에서 최초의 놀랄 만한 성과를 달성 한 인물이 여자라면, 성과나 역량보다는 ‘여성’이라는 성별이나 외모에 대해 뉴스에 더 부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김현주, 2004; 양승혜, 강혜주 2006). 이러한 모습은 비단 스포츠 섹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여성 정치인, 학자, 경영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는 여성을 묘사할 때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여성임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때 성별이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된다는 사실은 기사에 등장하는 대상의 수행 능력보다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모, 김연정, 2005). 언론은 여성 정치인의 사생활과 성격, 외모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할애하거나 육아, 보건, 여권신장 등 전통적인 여성 주제와 연관지어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양정혜, 2002; Davis, 1982; Devitt, 1999; Kahn, 1994). 이와 관련하여, 정

치운동과 관련된 여성 취재원은 종종 경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되기도 한다(Ashley & Olson, 1998). 최근 정계에 다수의 여성 정치인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현경미, 김원용, 2005), 한국 언론에서는 여성을 남성 정치인의 주변인으로 묘사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부각하고,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를 기술하기 보다 외모나 개인적인 성격과 같이 ‘여성’ 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더 강조하여 보도하고 있다(박노일, 한정호, 홍기훈, 2007). 아무리 여성의 성공스토리를 전달하는 기사라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과거에 비해 양적 혹은 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심층적 보도나 탐구가 없다는 지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허명숙, 2007).

Silver(1986)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뉴스메이커로서 가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존재하는 만큼만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뉴스 보도에서 관찰되는 전반적인 여성 기사의 부재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Pingree & Hawkinds, 1978).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이 당면한 중요한 정치적 문제나 혹은 경제적 문제들은 경성뉴스로 프레임 할 수 있는 사건이나 대상일 때 어느정도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김경모, 김연정, 2005). 예를 들어, 여성 인물의 모습을 주요 지면이나 화면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남성에 관한 기사와는 다르게 선정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부정적 이미지인 경우가 다수인데, 성범죄 관련 기사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미디어의 뉴스 보도는 성 평등 의식이 결여된 채 여성 이미지의 왜곡과 가부장제 질서를 옹호하는 메시지로 사회의 성 불평등 구조를 확대하고 재생한다고 있다고 관련 연구들은 강조하고 있다(김선남, 2002; 김훈순, 2004; 유선영, 1999).

② 텔레비전 보도

하루 안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사고 가운데 언론사들은 뉴스로서 가

장 가치가 있는 사건을 선택해 보도하는데, 이는 언론사가 가진 자원들, 즉 취재 인력과 방송시간의 한계, 상업적인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시청자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자극적인 뉴스를 선택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뉴스 가치에 대한 언론사의 전통적인 판단 기준과 마감시간, 정보원에 대한 신뢰와 기자의 판단, 뉴스룸의 의사결정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Taylor, 2009). 언론은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의 선택적인 보도를 통하여 사회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사건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거나 생략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등 보도 프레임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유도한다(Entman, 1991). 이처럼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미디어가 언급하거나 혹은 언급하지 않는 것, 또는 어떠한 방식의 재현과 설명을 반복하는 것은 사회적인 인식과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유도하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Hall, 1996; Tuchman, 1978).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이 객관적인 뉴스보도에 충실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실제의 언론보도는 정부가 통제하는 문화적 규범과 신념을 지지하고,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보도하며 현재의 정치시스템을 정당화하고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Halim & Meyers, 2010; Meyers, 1997). 언론의 보도프레임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언론이 사회가 승인하고 지지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기사를 선택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 또한 그들에게 전형적이고 익숙한 기존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서술방식을 선호한다고 지적한다(Carter, 2002; Meyers, 1997). 이러한 기존의 문화적 규범과 신념, 정치적인 시스템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의 특성(Carter, 2002; Halim & Meyers, 2010; Meyers, 1997)을 감안하면, 관련 선행연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뉴스 내 성편향적 보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자연스럽다. 뉴스의 성 편향적인 보도가 성차별적 문화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결과라는 주장은 가부장 사회가 지지하는 남녀의 성역할을 재생산함을 비판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존의 사회 운영 시스템에 도전하는 불편한 진실이다(Taylor, 2009).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뉴스의 프레임임을 지목했다. 뉴스의 프레임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뉴스에서 생산해내는 특정한 프레임의 반복적인 사용이 시청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어떤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유사한 판단이나 의견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Gamson, 1992; Iyengar & Kinder, 1987). 뉴스 프레임은 이미 발생한 사건의 일부분을 선택하고 강조, 생략, 편집함으로써 특정 사안을 해석하고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여 시청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Entman, 1993). 뉴스 프레임은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구성과 함께 특정어휘의 사용과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등 여러가지 수사적 장치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지며(이준웅, 2005), 뉴스의 서사 중 특정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들로부터 유발하고자 하는 태도나 생각을 더 부각시켜, 결론적으로는 뉴스 프레임의 구성에 기여하기 때문에(Gitlin, 1980), 뉴스에서 강조되거나 반복된 어휘가 시청자들에게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뉴스에서 여성을 지칭하는 특정한 단어의 반복적 사용은 뉴스 수용자가 여성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게 해 주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의 취재 대상이 되는 여성이든, 여성 취재원 혹은 여성 기자이든, 뉴스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드물게 등장하며, 주류인 남성의 주변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세은, 2018).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의 뉴스 보도 형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룸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세계 공통의 현상을 Tuchman(1978)은 ‘상징적 소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하고자 했다. 상징적 소멸이란 극단적인 과소재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미디어에서 여성이 제대로 묘사되지 않고 존재감이 없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과소재현은 실제보다 미디어가 훨씬 적게 다루는 것을 의미하고, 흔히 미디어가 여성이나 사회적인 약자, 혹은 소수자를 재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김세은, 2018). 여성이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경우에는 과소재현과 과잉재현 양쪽 모두 사용되는데, 여성의 모습을 과잉재현 하는 경우의 예로는 미디어가

여성을 다룰 때 주로 성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양자의 경우 모두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재현들이 여성들의 존재감을 결여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실제보다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뉴스가 여성을 남성에 비해 더 적게 다루고, 남성적인 시각에 맞추어 묘사를 하는 이유에는 뉴스룸의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의 사회·문화적인 원인이 있다. 뉴스의 생산과 제작이 뉴스를 생산하는 조직의 문화와 사회적 조건에 맞춰진 관행에 따라 관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자들이 선택하는 뉴스가 그들의 사고와 배경이 되는 관행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나영 외, 2013). 본래 뉴스의 생산은 남성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뉴스로서의 가치가 남성의 입장에서 판단된다는 점과, 그동안 여성이 정치나 경제 등과 같은 공적인 영역으로 진출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뉴스를 소비하는 수용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다는 점 등 때문에 뉴스는 저명한 여성 정치인이나, 전문직 여성에 대한 보도보다 여성의 성을 소재로 남성 시청자의 흥미를 끌기에 좋은 보도를 더욱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세은, 2018). 이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디어 시장에서, 고품질의 뉴스보다 흥미와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단순한 목적의 뉴스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시청자가 직접적인 접촉이 거의 없는 집단에 대해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될 때, 시청자는 해당 집단이 뉴스에 묘사된 모습을 정형화하게 되고, 이러한 정형화된 인식은 곧 일반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향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김경희, 2015에서 재인용). 특히 텔레비전 보도는 현실 그 자체를 사실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룸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각색을 통해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재현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Gamson, 1992). 뉴스를 생산할 때에는 기사를 선택하고, 편집하여 시청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가공을 하여, 시청자들이 현실을 바라보

게 하는 하나의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Tuchman, 1978),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해석, 선택, 강조와 배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패턴으로 프레임을 구성해낸다(Gitlin, 1980). 뉴스가 특정 집단에 대해 이미지를 과소 또는 과잉 재현하여 보도함으로써 고정관념을 생산해낸다는 지적은 앞선 선행 연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과 Gerbner(1998)의 문화계발효과이론을 포함한 다수의 이론들은 이처럼 일방향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이 시청자들의 태도와 인지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였다(김경희, 2015). 특히나, 우리나라의 미디어 소비자들은 신문, 텔레비전, 잡지,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 중 TV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로 꼽았기 때문에(한국언론재단, 2014), 텔레비전 뉴스에 묘사되는 성편향적 보도가 시청자의 고정관념을 재생산한다는 가정은 관련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탐구주제이다. 이러한 구성된 묘사가 나타나는 원인은 뉴스 생산과정에서의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도 다수 존재하지만(김훈순, 2004; 서영남, 2013), 이는 단순히 생산과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남존여비의 유교사상과 그로 인한 여성 지위의 후퇴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뉴스에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연 어떻게 생산되는 것일까? 고정관념이란 개인의 특별한 성격이나 개인차에 따른 능력의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단순히 그 개인이 특정 집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의 개성이나 특성, 능력을 특정 범위로 귀속시켜 일반화하는 관념이나 기대라고 할 수 있다(곽호완 외, 2008). 고정관념이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을 단순화하고, 집단과의 동질화를 통해 외부집단과 차별을 두는 편의적인 수단이다(Oakes, Haslam & Turner, 1994). 이러한 이유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한 보도가 여성들이 가진 각자의 독특한 개성이나 개인차를 무시한 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을 강조하거나 비주류로 취급하는 등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재현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이를 시청하는 수용자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강화될 것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배경지

식이 없이는 그러한 보도 행태를 비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뉴스는 사건의 배열과 등장인물로 구성되는 서사와 시청자의 시각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통해 구성되고, 많은 뉴스들은 그들만의 서사와 프레임을 통해 여성의 모습을 단순화하고 동질화하는 경향이 있다(김경희, 2015). 또한, 뉴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장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텔레비전 뉴스는 진실에 대한 서사를 구체화한다(Roeh, 1989). 서사는 사건적 요소와, 등장인물과 배경과 같은 사물적 요소로 구성되고,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서사의 구성이라 한다(한용환 역, 2003). 따라서 텔레비전 뉴스의 서사는 문자와 영상을 활용하여 뉴스에서 다루려고 하는 사건의 배열과 인물의 배치를 통해 이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을 말하는데(김경희, 2015), 우리나라의 뉴스는 보도하고자 하는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는 대신에, 하나의 집단으로 단순화하여 보도를 하기에 편리한, 단편적이고도 토막적인 기사의 구조를 사용하여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이재경, 2006).

이렇게 탄생한 보도기사는, 사건의 피상적인 현상과 과정만을 언급하는지, 혹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그 사건에 관한 해석까지 모두 보도를 하는지에 따라, 보도기사 자체의 복잡성을 평가받게 된다(Cohen, Adom & Bantz, 1990). 이러한 복잡성의 관점에서 한국의 텔레비전 뉴스를 분석한 한국언론재단의 연구(1999)를 보면, 사건의 원인이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과정과 결과만 나타낸 기사가 전체 분석대상 기사 중 51.7%를 차지하여 이야기가 단편화된 기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텔레비전 뉴스보도에서 여성은 단순화되어 보도되거나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특징으로 포장되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온라인매체 보도

현대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젊은이들은,

종이신문이 아닌 컴퓨터 혹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각종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소비한다. 이러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뉴스는 단지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언론사가 편집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읽고 난 뒤 댓글을 작성하고, 이러한 댓글들은 기사와 이슈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형태의 뉴스 콘텐츠로서 역할을 한다. 뉴스 이용자들은 기사 아래 달린 댓글을 읽고 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을 추정하기도 한다(이은주, 장윤재, 2009).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의 공유가 일상화되면서 과거에 언론사가 가졌던 편집권과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분배되었다. 소셜미디어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론사 편집국이나 유명 기자의 영향보다 자신에게 뉴스를 제공해주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 즉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뉴스 댓글과 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효과에 관해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댓글이 사람들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고문정, 2018). 개인에 따라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는 뉴스 댓글이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기존 태도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다(강재원, 김선자, 2012; 김은미, 선유화, 2006; 이은주, 장윤재; 2009). 이와 같은 이유로 댓글은 기사의 한 부분으로서 독자들에게 수용될 수도 있으며(김은미, 선유화, 2006), 뉴스의 댓글이 기사와 함께 융합되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김혜미, 이준웅, 2011).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전달하는 전달자 혹은 매개자가 되어 뉴스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의 영향으로 인해 뉴스는 전문가 집단만이 생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교환되는 이야기로 확장되며 뉴스의 개념이 변화되기도 했다(박선희, 2012).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라인 뉴스의 이용문화는 일종의 비제도적/비전통적 정치참여 또는 대안적 정치참여로 해석될 수 있다(이정기, 2011). 사람들은 온라인 뉴스를 적극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세상에 알리거나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등 정치적 참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문정, 2018). 온라인 뉴스 생산과 소비 활동은 정치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적대적 매체지각 이론에 기초하여 이러한 온라인 뉴스 문화를 해석할 수도 있다. 적대적 매체지각이란 어떤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하거나 뚜렷한 본인만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언론 보도가 자신의 의견과는 상반되거나 혹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와 같은 전통적 언론의 보도가 자신의 관점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터넷과 같은 대안적인 미디어로 뉴스를 소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다(고문정, 2018). 이와 관련하여 김영지와 하승태(2014)의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적대적 매체지각의 행위적 결과로서 인터넷 매체를 대안적인 뉴스 소비 방법으로 활용하며, 인터넷을 단지 흥미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말은 즉, 사람들이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와 이들이 전달하는 정보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뉴스에 반박하는 댓글을 달거나 이를 공유하여 토론의 장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온라인 뉴스 소비 행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수동적이었던 뉴스의 수용자들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온라인 뉴스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참여자로 변화했고, 공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교환하는 공론장이 이를 통해 형성될 수 있었다(McDermott, 2016). 이러한 기대는 온라인 뉴스에 댓글을 달고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사람들간의 '대화'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과 조직이 뉴스를 생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투명성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려내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기체가 된다(McBride & Rosenstiel, 2013).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과 정보에 영향을 주는 매개요인,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를 모두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의 투명성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윤리로서 널리 요구되고 있다(Chadha & Koliska, 2015).

특히나 인터넷 공간에서 잘못된 정보가 걸러지고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그 정보가 생성되었는지 출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Phillips, 2010).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공간인 온라인 뉴스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고 의견을 형성하는 이들은 익명성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지만, 올바른 뉴스 소비와 비판적 정보 수용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여론 형성자들의 신분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는 뉴스 댓글 작성자 혹은 공유자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최근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댓글을 쓰는 주체적 뉴스 소비자들은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고,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읽기보다 쓰기에 주력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나은경, 이준웅, 2008). 또한, 나은경과 이강형, 김현석(2009)은 뉴스공유자는 연령과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지상파 텔레비전이나 종이신문과 같이 전통 미디어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일수록 댓글을 많이 쓴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댓글을 쓰는 행위는 오락적 혹은 관계적 이용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들의 뉴스 이용이 사회적 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온라인 뉴스를 1차적으로 생산해내는 언론사는 여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까? 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사에서 생산해 낸 기사를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온라인 뉴스공유자들은 여성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할까? 언론은 보도 프레임을 통해서 현실을 재구성한다(Pan & Kosicki, 1991; Entman, 1993). 즉, 보도 프레임을 통해 뉴스를 재가공하고 시청자들의 의식의 흐름을 언론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언론 종사자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언론 종사자가 속해 있는 조직이 추구하는 보도의 방향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국가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Gamson & Modigliani, 1989). 이러한 언론의 프레임을 Gitlin(1980)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 선택, 강조, 배제와 관련된 일정하고 지속적인 패턴이며, 이 패턴에 따라 상징 조작자가 관행적으로 언어적 또는 영상적 담론을 조직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Entman(1983)이 프레임의 구성방식과 관련하여 선택과 현저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현경미, 김원용, 2005에서 재인용). 이렇게 프레임은 현실의 어떤 측면을 과장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데, 이는 현실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해석을 유도하는 의미 생산의 도구이며, 프레임의 반복적인 사용은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을 해석할 때 결부시킬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하게 된다(현경미, 김원용, 2005).

언론에서의 성편향성 보도 경향은 분야를 막론하고 어느 분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신문과 텔레비전 보도에서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라인 뉴스 보도에서 제2의 생산자인 뉴스공유자들의 여성 묘사 프레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에 관련한 언론보도의 특징과 뉴스공유자들의 여론 형성에 대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보도의 영역이다.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여성피해자와 남성가해자의 폭력사건 보도에 있어 뉴스가치의 결정과 보도의 내용이 여성, 남성, 폭력, 사랑 등에 대한 문화적 신화와 스테레오 타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Meyers, 1997; Nikunen, 2011).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들은 보통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남성중심적 조직인 경찰의 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고유의 가부장적 남성문화와 피해여성에게 책임을 묻거나 불필요한 성적행위를 묘사하는 선정적 보도는 이와 일종의 인과관계를 보인다(홍지아, 2016; Taylor, 2009; 홍지아, 2017에서 재인용). 그러나 여성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여성단체나 피해자 단체 등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취재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앞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다(Fairbairn & Dawson, 2013; Taylor, 2009). 이러한 취재 보도라면 당연히 가해자 남성은 전체 남성을 대표하지 않는 동떨어진 존재로서 표현되고, 피해자 여성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조신한 여성답지 않은’ 여성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는 나이와 직업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여성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축소하는 프레임이 사용된 것이다(한국여성민우회, 2016).

이는 우리 한국사회가 남성의 여성지배를 정당화하고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Meyers, 1997), 또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Heise, 1995) 사회에 만연한 고정관념이 미디어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은 개인적 관계를 넘어 종속적 여성과 지배하는 남성의 관계를 재생산하는 사회구조와 분리할 수 없다(Hanmer & Maynard, 1987).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혐오 표현을 한국사회와 대중문화의 논제로 만들었다.

여성에 대한 비하, 차별을 당연시하고 더 나아가 혐오를 표현하는 ‘여성 혐오’ 표현과 정서는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수아, 2015).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온라인 미디어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데에는 접속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다. 게다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쉬운 특성 때문에 의견의 집단 극화가 일어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온라인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이 게시되게 되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의견이 실제로도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인지하게 되어 스스로의 의견을 재조정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이로 인해 의견의 양극화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나은영, 2006).

인터넷은 익명성의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온라인매체의 소비자들은 익명성이 가지는 보호막 아래서 집단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쉽고, 특정 집단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사이버 홀리건과 같은 양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 또는 흥미로운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오

미영, 2011). 이러한 익명성의 특혜로 사람들은 서로를 대면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는 체면 관리 때문에 말할 수 없던 표현들을 정제하지 않고 쏟아내게 되기 쉽고, 수치심이나 윤리의식 또한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박성호, 2003).

앞서 언급한 온라인 공간의 기술적 특성과 맞물려서, ‘여성혐오’의 정서는 최근 한국 온라인 미디어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동조되어, 이러한 정서가 지배적인 의견과 정서로 굳어지는 중에 있다(김수아, 2015). Chizuko Ueno(2012)는 ‘여성혐오’란 여성에 대한 멸시를 의미하여, 여성을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고, 여성을 나타내는 기호에만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의 객체화와 타자화를 통한 여성 멸시가 바로 ‘여성혐오’를 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가부장제하의 성차별과 관련된 현상들은 ‘여성혐오’ 개념과도 연결된다(김수아, 2015). 이렇게 성차별주의와 함께 쓰이는 ‘여성혐오’의 개념은 비단 여성에 대한 감정적인 차원이나 증오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학습되어 형성된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Mclean & Maalsen, 2013). 이에 관하여 Adams & Fuller(2006)는 ‘여성혐오’란 여성에 대한 증오와 멸시를 뜻하는데, 이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여 이용이나 착취 혹은 학대의 대상으로도 확장될 수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물론 이 부분은 역사적 맥락과 문화권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온라인 미디어 매체가 갖는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은 다양한 시민 주체들의 의견이 공유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론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스스로도 이러한 흐름에 동조된다면, 이 공론장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미디어 매체의 보도와 이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의 의견 또한 성 차별적이며 성고정관념을 더욱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3. 스포츠보도에 나타난 성 편향성

스포츠와 성에 관련한 연구는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국 스포츠의 남성중심적 헤게모니가 지배적인 스포츠 문화와 여성선수의 문제를 경시한 스포츠사회학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고, 곧 스포츠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조규상, 2003). 특히 미국에서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남녀교육평등법안인 ‘타이틀 나인(Title IX)’를 통과시킴으로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는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했고(김성진, 2014), 이는 여성에게도 동등한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은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법이 스포츠에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적용범위는 고등교육, 직업교육, 임산부 혹은 미혼모 학생들을 위한 교육, 취업, 학업환경, 수학과 과학 교육, 성희롱, 학력평가 시험과 테크놀로지 부문 등이 모두 포함될 만큼, 실제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문일용, 2015). 법안이 제정된 이후 오늘날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늘어나고 개선된 대우를 받는 등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많은 발전을 거듭했지만(김성진, 2014), 시행 초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남성 위주로 운영되던 여러 교육기관의 스포츠 담당자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했고 오늘날까지도 부족한 인프라와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몸짓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정준영, 2001).

1980년대 이후 미디어와 스포츠의 관계에 주목한 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성별, 인종, 민족, 상업성과 관련한 이념들이 미디어 스포츠를 통해서 재현되거나 혹은 강화되는 방식과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해왔다(고은하, 김한주, 2004). 이러한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미디어가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Duncan et al., (1994)의 논문에서는 미디어가 스포츠를 매개로 시청자에게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 혹은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와 같은 이념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스포츠 사회학계에서는 미디어가 편향된 성역할 조장을 통해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고, 여성선수의 성공을 대수롭지 않게 경시화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스포츠의 영역을 남성중심적 헤게모니의 영역으로 유지하도록 일조한다고 비판한다(Hargreaves, 1994; Kane & Greendorfer, 1994). 미디어가 편향된 성역할을 조장하는 방법에는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이 있는데, 최근 주목되는 부분은 여성선수를 묘사하는 수사어법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선수로서의 능력보다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 즉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하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와 같은 사회적 편견을 강요하고 있으며(Ray, Murrell, & Jackson, 1999; Lumpkin, Williams, 1991; Duncan, Sayaovong, 1990; Creedon, 1998), 여성의 성공을 경시하고, 생물학적 차이를 신체적 한계로서 표현하고, 상업적인 목표로 여성선수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등의 사실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Stevenson, 2002; Mizcosa, Philips, 1999; Eastman, Billings, 2000; Duncan, 1990; 남상우, 2004; 이강우, 2003; 홍승후, 2016; 서경화, 김석기, 2012).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묘사에 대한 미디어의 표현 방법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성편향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양적인 차이 또한 주목해야 한다. 양적인 차이로는 보도의 양과 위치에서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기사의 중요도는 1면에 배치되는지 혹은 뒷면에 배치되는지에 대한 각 장에서의 배치와, 해당 면 내에서도 위, 중간, 아래 중 어느 위치에 기사가 배치되는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Vincent, Imwold, Masemann, Johnson, 2002). 여성선수의 보도량과 중요도가 남성선수의 보도량과 중요도에 비해 현저히 빈약한 수준임은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Vincent et al., 2002; Xu et al., 2017; Billings,

2008; 고은하, 2008).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성선수에 관한 보도가 남성선수의 것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평등하지 못한 것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사실이었으나,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여성스포츠의 종목은 피겨나 체조와 같이 ‘여성적인’ 스포츠가 다수이고, 여성적이지 못한 ‘남성적인’ 스포츠 종목에서 경쟁하는 여성선수의 모습은 주목을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Vincent et al., 2002; Lee, 1992; Williams et al., 1985; Duncan, 1990; Pirinen, 1997; Xu, Billings, & Fan; 2017) 역시 미디어 스포츠 속 성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녀 스포츠선수 관련 보도량의 차이가 국가를 불문하고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대항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Bruce, Hovden, & Markula, 2004). 그 이유는 메달 취득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정서가 국가 간 메달 경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고, 그 순간만큼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차별은 중요해지지 않으며, 그저 메달 획득을 위한 선수의 실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으로 스포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스포츠 보도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스포츠 관련 기사는 다소 적은 비율로 증가했음이 지적되었으며(김한주, 고은하, 2004),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는 노르웨이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스포츠 보도에 있어서는 여성스포츠에 할당된 지면은 불과 15%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Bruce, Hovden, & Markula, 2004). 한국에서도 최근 30년간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선수의 미디어 보도는 여전히 남성들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여성스포츠재단, 2004).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의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 미디어의 스포츠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무대에서 여성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짐에 따라, 남성스포츠 보도량에 비해 여성스포츠 보도량이 아직도 현저히 적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성스포츠 관련 보도량 또한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Vincent et al., 2002; King, 2007). 예를 들어, 2007년 수행된 King의 논문 *‘Media Portrayals of Male and Female Athlete*

s' 에서 영국의 'The Times' 와 'Daily Mail' 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남성선수의 보도기사가 여성선수의 기사보다 월등하게 많았지만,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여성선수의 보도가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여성선수에 관한 보도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여성선수에 대한 관심과 대우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늘어난 여성선수의 기사가 '선수'로서의 퍼포먼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성을 부각시키거나 외모나 성격 혹은 가족관계와 같이 경기와는 관련 없는 특징들에 주목하여 상업적으로 보도량을 증가시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스포츠 참여와 차별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포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여성선수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경향 분석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 또한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가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성 스포츠에 대한 더 평등한 보도를 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여성스포츠인들이 미디어에 비추어지는 모습은 왜곡되고, 과장되고, 주변화되어 여전히 남성적인 시각에서 표현되고 있다. 광정현과 이선희(2014)의 연구에서는 연도별 미디어의 여성선수에 대한 보도내용을 살펴본 결과 1980년~1990년대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기사는 대부분 여성선수들의 외모적인 측면보다는 경기내용이나 경기력, 불굴의 의지와 같이 경기와 관련된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2000년~2010년도 사이의 여성선수 기사는 여성선수들의 경기 내용이나 경기력 위주의 보도보다는 외모적이고 선정적인 비경기적 측면이 강조되는 기사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 보도를 소비하는 주요 시청자 혹은 구독자들이 여성보다는 주로 남성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미디어 매체들의 과도한 경쟁 증가와 상업성 증가로 인해 여성선수의 매력요소와 같은 비경기적 요소를 경기적인 요소보다 더욱더 선정적이고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여성선수의 경기 외적인 요소들이 경기수행능력보다 더 강조되는 경우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주로 여성선수를 중심으로 다루는 보도가 남성선수를 다루는 보도보다 양적으로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일뿐더러, 여성선수를 묘사함에 있어서 경기에 관련된 선수로서의 능력보다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등의 질적인 차이 또한 다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여성선수가 인쇄매체에서 실제 참여율보다 더 적은 빈도로 표현되었음을 밝혀주었다(Vincent, Imwold, Masemann, Johnson, 2002). Lever와 Wheeler(1984)가 수행한, 1900년~1975년 시카고 트리뷴의 스포츠 페이지를 종적 내용분석한 연구에서, 1900년도에는 여성 관련 스포츠 보도가 전체 신문기사의 1.2%밖에 되지 않았고, 1925년부터 1950년 사이엔 4% 가량 증가하였으나, 이후 1975년까지 0.1% 밖에 증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성 관련 스포츠 관련 보도의 양이 전체 신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적으로 적은 것을 나타낸다. 이후 Valgeirsson과 Sydner(1986)의 *'New York Times'* 와 런던의 *'The Times'*, 아이슬란드의 *'Morgunbladid'* 를 비교문화연구한 논문에서, 앞서 언급된 모든 3개사의 신문들이 스포츠 보도의 10% 미만을 여성 스포츠에 할애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과소평가된 여성선수 관련 보도는 4가지 일간지를 내용분석한 Duncan, Messner, Williams(1991)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여성선수의 보도는 전체 신문의 4%에 불과했으며 사진보도의 경우는 8%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Crossman, Hyslop, Guthrie(1994)가 *'Globe and Mail'* 의 스포츠면을 내용분석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선수의 보도가 전체 스포츠면 보도의 83%를 차지할 때 여성선수의 보도는 6.3%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여성선수와 남성선수의 신문 보도량을 비교한 연구들이었다. 비록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선수가 남성선수보다 적은 보도량을 갖는다는 것을 밝혀주었지만, 성별에 따른 보도량의 차이가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의 경기에서는

비교적 줄어들어 줄 것을 알 수 있다(Vincent et al., 2002). 이는 앞서 말했듯, 성별에 따른 차별보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한 국가주의적 태도와 관련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고은하(2008)의 아테네올림픽 신문보도 내용분석 연구에서도, 올림픽기간 이외의 스포츠 보도에서는 성별 간 보도량의 차이가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Billings, Angelini, MacArthur, Bissell, & Smith, 2014; Eastman & Billings, 1999; Lee, 1992)에서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성별에 따른 보도량의 차이가 좁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하계올림픽 경기 당시 호주 뉴스매체의 여성선수 관련 보도는 전체 보도의 39%에 달했고(Lumby, Caple, & Greenwood, 2010), 이 외에 Billings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2012년 하계올림픽에서 미국의 NBC 방송사가 황금시간대(Prime Time)의 54.8%를 여성스포츠를 보도하는데 할당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미국의 올림픽보도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올림픽 기간의 보도와 관련하여 Pfister(1987)의 서독(West German) 신문 *'Frankfurter Zeitung'* 를 내용분석한 연구에서는 1952년~1980년도 사이의 올림픽게임에 출전한 여성선수의 보도가 1936년 14.6%에서 1980년에는 29.3%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936년도 올림픽게임에 출전한 여성선수의 참여비율이 전체 선수의 8.1%에서 1980년 21.6%로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수치로 생각된다. 또한 Urquhart와 Crossman(1999)의 1924년~1992년 사이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대한 *'Globe and Mail'* 신문의 첫 페이지와 스포츠면의 보도를 내용분석한 연구에서는 올림픽경기에 출전한 여성선수들의 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했다. 위 논문에서는 1924년~1960년 사이 여성선수 관련 보도는 남성선수 관련 보도에 비해 적은 인쇄면을 갖지만, 1964년~1992년 사이에는 남성선수보다 더 많은 인쇄면을 차지한다고 했다. Urquhart와 Crossman(1999)은 1964년과 1992년 사이 여성선수의 사진보도량이 여성선수의 참가율보다 큰 숫자이기에 의미가 있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성선수의 보도율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1924년과 1960년대 사이

에는 전체 신문기사의 82%와 73%의 사진보도가 남성선수를 다룬 반면, 여성선수의 보도는 전체 신문기사의 18%와 27% 수준의 사진보도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덧붙여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주장은, 동계올림픽 개최시에는 여성선수의 보도가 신문의 첫 페이지나 스포츠면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경우는 더욱더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계올림픽의 경우가 동계올림픽에 비해 여성선수의 경우 여성성이 부각되는 종목과 복장으로 인한 선정적 및 상업적 보도가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말했듯 스포츠 미디어에 나타나는 성 편향성은 단지 양적인 차별에만 나타나지 않고, 질적인 차이에서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스포츠는 강렬한 신체적 경쟁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스포츠는 남성 지배적 분야로 인식되어 여성선수들이 상당히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Broch, 2016). 여러 선행연구들은 여성스포츠가 일반적으로 스포츠 미디어 전체 보도기사 중 한 자리 숫자 단위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Billings & Young, 2015; Cooky, Messner, & Hextrum, 2013; Cooky, Messner, & Musto, 2015). 또한 스포츠미디어는 여성스포츠에 한자리 숫자의 제한적인 보도를 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여성선수의 업적 또한 하찮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MacKay & Dallaire, 2013), 여성선수의 몸을 성적대상화 하기도 하며(Kane, LaVoi, & Fink, 2013), 여성선수의 모습을 소녀로서 취급하며(Ponterotto, 2014), 특정 스포츠 이벤트를 ‘진짜’ 스포츠가 아닌 ‘여성 스포츠’로 명명하기도 하고(Jones, 2012), 여성선수의 스포츠와는 관계없는 면들을 과장하고 부각하여 표현하기도 한다(Wolter, 2015)고 주장한다. 이러한 스포츠미디어의 성편향적 프레이밍 경향은 다수의 스포츠 공동체로부터 스포츠 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남성중심적 헤게모니를 장려한다는 부정적 비판을 받고 있다(Bruce, 2016).

그러나 스포츠미디어의 남녀 보도량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남녀 스포츠 선수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Xu, Billings, & Minghui Fan, 2018).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포츠미디어들은 여성스포츠를 보도할 때 체조와 같이 ‘여성에게 적합한’ 혹은 ‘여성에게

어울리는’ 스포츠 종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등의 성편향적 프레이밍 전략을 고수하기 때문이다(Billings et al., 2014; Yu, 2009). 게다가, 스포츠중계시에는 여성선수의 여린 모습과 매력적인 모습을 선수로서의 모습보다 더욱더 강조하여 묘사하는데, 이는 여성선수의 ‘선수’로서의 능력을 경시하는 스포츠미디어의 일반적인 행태이다(MacArthur, Angelini, Billings, & Smith, 2016; Tseng, 2015). 이러한 미디어의 행태에 힘을 입어 스포츠선수로서 갖추어야 할 뛰어난 경기력보다는 선수의 외모나 성격과 같은 매력자본만으로 스포츠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선수도 있는데, 바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올림픽을 통하여 스타덤에 오른 손연재 선수의 경우이다(정현, 장익영, 이종영, 201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올림픽 기간 동안 주요 신문에 나타난 여성선수 관련 보도와 남성선수 관련 보도의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 보도 기사에 양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제 2 절 언론의 보도프레임과 여성스포츠경기 보도

1. 언론에서 프레임의 개념과 종류

프레임이라는 용어는 캐나다 사회학자인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Adams와 Goffman(1979)이 공동 집필한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라는 연구에서 ‘프레임’이란 정보의 처리를 위한 해석적인 스키마로서 인식되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사람은 선택적인 자각과 지각을 통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데, 현실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조직화된 현실을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여 바라보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Entman(1993)에 의하면, 프레임의 본래 성질은 현실 세계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더욱 돋보이게 하거나 덜 돋보이도록 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특정 부분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Reese, Gandy, Grant (2001)의 ‘*Framing Public Life*’ 라는 책에 의하면, 프레임이란 ‘사회구조를 유의미하게 조직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구조화 한 원리’라고 한다.

Gitlin(1980)은 ‘미디어 프레임’을 인지와 해석, 선택적인 표현, 강조, 배제 등의 지속적인 패턴’이라고 정의하였다. 어느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이는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프레임링 될 수 있는데, 미디어는 그중 가장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프레임을 채택한다(Gamson, 1989). 미디어는 선택적인 강조와 생략을 통해 대중에게 의도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이는 잠재적으로 대중의 의견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Entman, 1993).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에 더해지는 정보의 입력과 생략이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Gamson, 1989). 미디어는 특정 사건이나 이슈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객관적인 매개체가 아니라 세계를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주관적인

매개체라는 것이다(Entman, 1993; Pan & Kosicki, 1993). 언론이 현실 세계를 특정 방식으로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은 Gamson, Croteau, Hoynes, Sasson(1992)의 연구를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언론학의 주요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이며, 이를 토대로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이희영, 김정기, 2016).

프레임을 미디어 담론 관점에서 살펴보면 뉴스의 제작과정이나 미디어의 내부 요인은 담화 관행의 한 축에 해당하며 외부 요인은 사회문화적 관행에 관계된다(김원용, 이동훈, 2005). Gamson과 Modigliani(1981) 또한 담론으로서 프레임의 형성 요인을 미디어의 관행과 문화적인 공명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Hartley(1982)도 그의 저서 *'Communication, cultural and media studies'* 에서 역시 코드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미디어의 내외부적 요인을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프레임이 가지는 이론적 틀로서의 유용성이다. 프레임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언론의 보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프레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불명확성과 주요개념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Entman, 1993). 이에 대해 Entman(1993)은 개념적인 산만함을 지적하였고, Scheufele(1999)는 그의 논문에서 프레임에 관한 연구가 이론과 분석방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한계에 마주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 즉 언론이 현실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한다는 실재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은 언론학에 있어 주요한 인식론적 체계이며, 이를 바탕으로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뉴스 프레임의 연구는 '프레임' 또는 '프레이밍'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언론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밝힌다. 따라서 '프레임'이란 간단히 말해 뉴스가 어떤 특정 사건 또는 이슈를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 지어 포장하는 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뉴스 프레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한다. Iyengar과 Simon(1993)은 프레임이란 현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 중 특정 측면을 선택하고, 특정 관점으로 강조하여 표현하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Tuchman(1978)은 뉴스 미디어는 현실을 재구성하는 도구이고, 프레임은 미디어가 현실 세계를 재구성할 때 사용하는 작업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으며, 이러한 프레임링 과정을 ‘현실 세계를 의도하고자 하는 특정 방향으로 의미화하는 과정’ 으로서 정의했다. 이렇게 뉴스 프레임에 관한 연구는 언론이 어떠한 현실을 어떤 프레임을 통해 뉴스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지, 또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크고 작은 사건이나 이슈를 어떠한 프레임이라는 액자를 사용하여 재구성하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뉴스 프레임에 관한 연구는 언론보도에 관한 연구의 주요 연구 분야로서 1990년대부터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이희영, 김정기, 2016). 앞서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의 각종 사건과 사고는 물론 국가의 크고 작은 이슈와 쟁점 등 다양한 보도주제를 대상으로 수많은 유형의 뉴스 프레임이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도되는 인물의 성별에 따라 프레임의 범주가 달라지기도 하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프레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 미디어에서 여성선수를 묘사할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외모주의, 선정주의, 가족주의 프레임 등 이외에도 성인 여성선수를 ‘소녀’ 또는 ‘국민여동생’ 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어린 여성으로 표현하고 주변화 하는 등 다양한 프레임을 발견할 수 있다. 프레임에 관한 예시로는 ‘용산사태’ 를 다룬 신문보도 분석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책임 공방’, ‘폭력 난동’, ‘갈등 대치’, ‘편파보도’ 등의 다양한 프레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의철, 이창호, 2007).

이처럼 보도되는 뉴스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뉴스 프레임은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이는 개별적인 보도가 지니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프레임의 구분에 있어서 모호한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고, 프레임을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뉴스의 프레임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선행된 수많은 프레임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는데, 프레임 연구는 보도의 해석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레임을 구분함으로써 가지는 해석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하고 프레임의 개념과 분석방법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의 이론적 틀로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Entman, 1993; Scheufele, 1999). 이에 대한 지적으로 Entman(1993)은 그의 연구에서, 프레임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개념과 연구의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로 수행된 연구는, 부분적인 개념만을 제공하여 정확한 개념적 정의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미완성적 이론적 체계’라고 지적했으며, Scheufele(1999) 또한 프레임 연구가 이론적인 배경과 분석방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지적했다.

프레임은 ‘틀’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언론보도와 관련한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Goffman(1974)이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인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프레임의 개념은 인문학과 사회학 영역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다. Goffman(1974)은 프레임을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협상하기 위한 틀로 사용했으나, 다른 분야의 학문에서는 이것을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구조화 혹은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한국 언론학에서 프레임을 이용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 뉴스 보도내용이 갖는 특성을 깊이 해석하고자 수행된 이론적 도구로서 등장했다(이희영, 김정기, 2016). 이후 뉴스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그룹에의 편파적인 특성 등을 연구함으로써 특정 사건의 개요를 뉴스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와 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시작했다(이준웅, 2000).

앞서 선행된 뉴스 프레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사안에 관해 여러 이해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언론의 프레임을 살펴볼 수 있고,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가치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갈등 담론이 형성되고 대립하는 현실이 있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에 맞게 재구성하는 언론의 활동이 있다(이상률, 이준웅, 2014). 이와 같이 언론사들은 각자의 성향과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뉴스의 프레임 경쟁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다. 뉴스의 프레임 경쟁은 언론의 경쟁구도에 빠질 수 없는 현상이

기 때문이다. 언론의 프레임 경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 앞서 언급한 Reese et al.(2001)의 저서에서는 프레임의 충돌 과정을 시작단계, 개념의 정의 및 대립 단계, 공명 단계, 평정 또는 해결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개 과정은 잠재기, 점화기, 고조기, 쇠퇴기로 구분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프레임의 형성과 경쟁, 주도과 쇠퇴가 나타난다(김원용, 이동훈, 2012).

단계적 분석방법이 아닌 프레임의 질적 연구에서도 2가지 이상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이러한 복수 프레임들의 대립구도를 연구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Gamson & Modigliani, 1989; Entman, 2007). 이에 관해 Gamson과 Modigliani(1989)는 한가지 시안에 하나의 시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채롭고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흐름으로서의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지배적인 프레임과 그에 맞서는 ‘도전적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언론의 프레임이란 특정 이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적 의미들의 완전체라고 볼 수 있다. 뉴스의 프레임은 언론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해석하는 도구로써 기능하는데, 이는 뉴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양할수록 더 다양하게 구성된다.

앞서 사용된 기존의 프레임에 관한 연구물들을 보면 각 프레임의 해석기준과 이론적인 설명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경쟁구도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언론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프레임 전략은 동일한 경우라도 전략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항상 한가지 방향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프레임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깊이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프레임링을 하는 주체자들의 프레임과 이를 사용하는 전략에 중점을 두고 프레임 구도를 바라봐야 하며, 이것이 야기하는 사회적인 의미와 실천적인 기능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프레임의 유형과 이것이 함축하는 메시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여성스포츠경기 보도프레임

스포츠 사회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토니 브루스(Toni Bruce) 교수는 20년 이상의 여성선수 관련 스포츠 보도 연구를 통해, 여성 운동 선수가 언론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추세를 보여주는 연구를 수행했고, 2018년 5월 개최된 IWG 세계 여성 스포츠 회의에서 스포츠 미디어의 여성선수 묘사 프레임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주장했다(Paul Hunt, 2018). 다음은 토니 브루스(Bruce, 2016) 교수가 밝혀낸 스포츠 미디어의 여성선수 묘사 프레임의 패턴이다.

첫째로,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거만큼 만연하지는 않은, 스포츠 미디어의 고전적인 프레임에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1) 낮은 방송제작 가치: 여성 스포츠를 보도할 때 촬영하는 카메라의 개수가 적고, 적용하는 통계기법이 적으며 반복재생 횟수 또한 적다. 일반적으로 해설자들은 남성이고 이들은 여성 선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여성 스포츠를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고 지루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2) 성별 표시: 일반적으로 스포츠 종목에는 그냥 '축구'가 있고, '여자 축구'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냥 '월드컵'이 있고, '여자 월드컵'이 있다. 이렇게 성별을 표시함으로써, 남성 스포츠는 단지 '스포츠'로 묘사되고 여성 스포츠는 그렇지 않다.

3) 유아화: 20세기 내내 미디어에 자주 등장했던, 여성을 소녀 또는 젊은 여성으로 묘사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문제는 여성이 소녀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런 유아화적 묘사기법이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남성은 항상 성인 남성으로서 표현될 뿐, '소년'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4) 비 스포츠 관련 측면: 앞서 수행된 수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스포츠 미디어가 여성 선수의 개인적인 삶, 외모 및 가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5) 남성 스포츠와의 비교: “그녀는 여성 우사인볼트입니다.” 와 같은 발언은 격려하고 치켜세우고자 하는 의도이지만 실제로 남성 스포츠가 여성 스포츠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으로 제시되는 또 다른 표현이다.

둘째로, 광범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기 어려울 만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프레임에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1) 저조한 여성 보도율: 전 세계적으로 여성 스포츠 선수 관련 보도는 남성 선수에 비해 매우 적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한 연구 결과 1980년 이후 여성 스포츠 선수 관련 보도는 전체 스포츠 관련 보도의 평균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2) 강제적인 이성애 / 적절한 여성성 강조: “운동선수가 될 수 있지만, 여성적인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와 같이, 여성성을 ‘체력’, ‘힘’ 또는 ‘강인함’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여성선수의 보도 시 이성애적 여성성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선수의 레즈비언적 성 정체성이나 ‘남성적인’ 신체를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3) 성적 대상화: 이 프레임은 운동 능력이 아닌, 운동선수의 신체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 스포츠 선수를 묘사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특히 ‘섹시한 자세’로 잡지의 표지에 많이 등장하는 미국에서 더 흔하게 볼 수 있다.

4) 양면성: 언론이 여성 스포츠 선수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 스포츠 담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힘, 기술 및 성취와 동시에 유아화, 강제적인 여성스러움 강조 및 성적대상화와 관련된 속성에 동시에 중점을 둔다.

셋째로는, 남성선수 보도에서 다루어지는 요소들이 여성선수의 보도에서도 다루어지는, 공통분모를 가진 프레임이다.

1) 경쟁적인 이미지 강조: 이 프레임은 여성선수의 힘과, 체력, 운동 능력을 다룬다. 앞선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경기에서 경쟁하는 여성 스포츠 선수의 이미지는 남성 선수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의 이미지 수는 남성 선수의 것보다 훨씬 더 적다.

2) 진지한 선수 이미지 강조: 여성 스포츠 선수들은 과거보다 점점 더 진지한 선수의 이미지로, 선수로서의 능력을 중심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이벤트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3) 모범시민: 자국의 여성선수가 승리할 때, 미디어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서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4) 우리와 그들의 구분: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이러한 고정 관념을 다른 나라의 여성 선수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국을 빛낸 여성선수들에게만 적용한다. 즉, 자국의 여성선수들은 강하고 단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진지한 선수로서 표현되지만, 다른 나라의 여성선수들은 과도하게 여성화되거나 성적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로, 최근 온라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미디어에서

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1)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텔링: 운동선수나 스포츠의 팬들은 웹 사이트,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미디어를 자체적으로 제작한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는 여성 팬들의 목소리가 미디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었고, 이는 지나친 남성중심적 미디어 행태를 견제할 수 있게 해주었다.

2) 예쁘면서도 강력한 이미지: 온라인 미디어 속 여성선수의 이미지는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단호한, 세계 챔피언과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여성성을 강조하면서도 강인한 모습,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대표되는 여성 스포츠 선수는 종종 소셜미디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수행되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선수는 모델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된 바가 있을 정도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정말로 긍정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성차별적 행위인지는 말 하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매력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운동 선수는 대체로 백인이며, 날씬하고, 키가 큰, 이성애적 경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에 언급된 프레임들은 간단하게 기술중심의 묘사와 비기술중심의 묘사로 나누어질 수 있다. 기술중심과 비기술중심 묘사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중심

Xu, Billings, & Fan (2017)의 연구에 적용된 운동선수 관련 묘사의 수사학적 분류체계(Billings & Eastman, 2003)에 따르면, 기술중심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1)집중력을, “힘이 부족했다” 등의 언급을 통해 (2)체력을, “회전이 완벽했다”

등의 표현을 통해 (3)개인기를, “완벽하게 수행하기엔 너무 떨렸던 것 같다” 와 같은 표현으로 (4)침착함을,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등의 표현으로 (5)헌신도를, “용기있다” 와 같은 표현으로 (6)용기를,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다” 와 같은 표현으로 (7)경험을, “영리한 대처였다” 와 같은 표현으로 (8)지적센스를, “오늘은 그를 위한 날이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퍼모먼스와 행운과의 (9)조화를 표현했고, 이들을 기술과 관련된 묘사로 보았다. 분석의 단위는 위의 단어를 표현하는 어떠한 형용사나, 형용사구, 부사, 부사구가 포함된다.

② 비기술중심

위와 동일하게, Billings & Eastman (2003)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비기술중심의 묘사는 성격이나 신체부위에 대한 묘사로서, 다음과 같다: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 등의 표현을 통한 (1)외향성 묘사, “겸손한 모습이였다” 와 같은 (2)내향성 묘사, “만족스러워 보였다” 등의 (3)감정 묘사, “그녀는 매우 우아하다” 등과 같은 (4)매력도 묘사, “그녀는 작고 어린 소녀이다” 와 같은 (5)신체 묘사, “1996년도 출생이다” 와 같은 (6)배경 묘사가 비기술중심의 묘사로서 분류되었다.

3. 올림픽 보도프레임의 특수성

복합적인 사회 맥락에서 젠더, 인종, 민족성 등에 관해 사회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중에, 올림픽만한 것이 없을 만큼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이벤트를 넘어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Billings & Eastman, 2003). 매개된 스포츠, 즉 미디어를 통해 중계되는 스포츠의 여러 경로 중에서, 특히나 텔레비전을 통해 올림픽을 관람하는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가히 다른 관람스포츠 시청자들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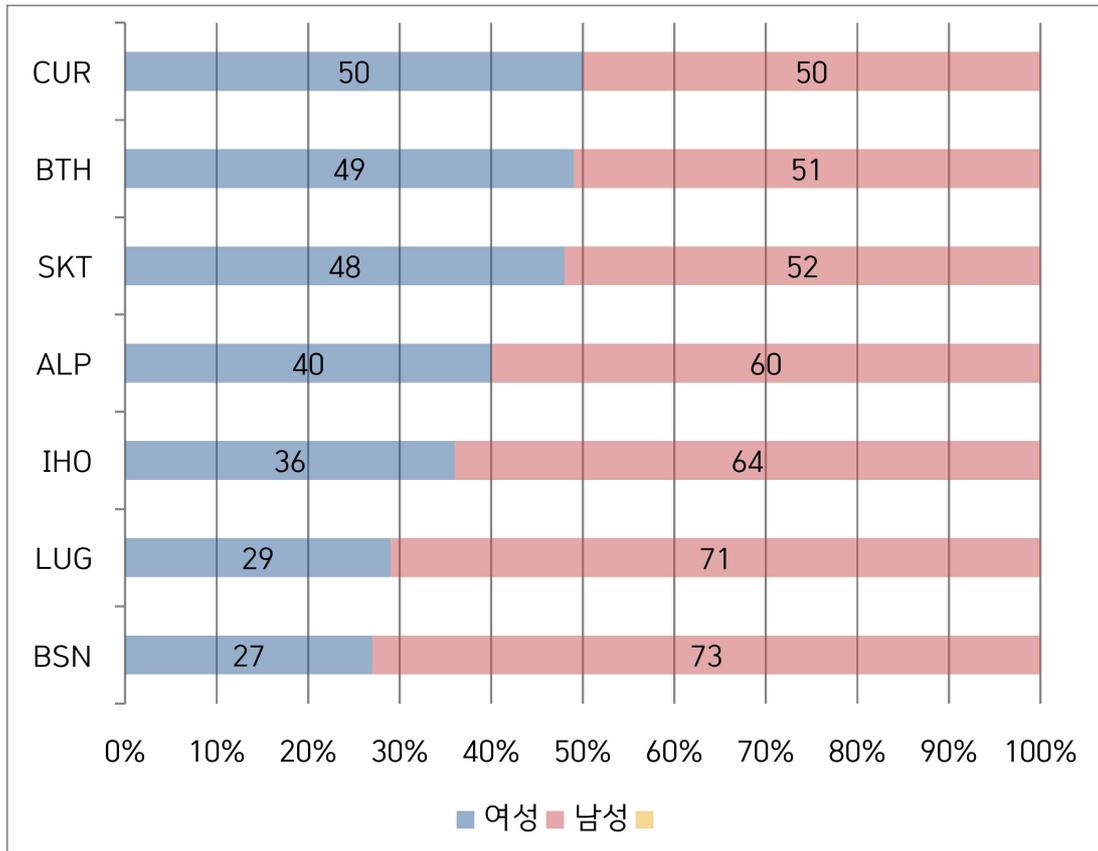
를 가진다(Billings, 2007).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을 기준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텔레비전을 통한 리우올림픽의 관람객 수를 35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전 세계 220개에 이르는 국가와 영토에 걸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의 시청자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시청자들과, 날로 증가하는 여성선수들의 참여율, 그리고 이러한 여성선수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올림픽은 성차별이나 젠더불평등 이슈를 분석하기에 더없이 좋은 미디어 스포츠이벤트로 간주된다(Coche & Tuggle, 2016). 비록 스포츠 본래의 특성들이 매우 남성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차에 따른 프레임의 차이가 평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1924년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열린 제1회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258명의 선수들 중 여자 선수는 11명에 불과했으며, 모두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다(Monica Ulmanu, 2018). 그들의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 손바닥 너비에 달해 당시 많은 관중들의 격분을 샀다고 한다. 첫 번째 동계올림픽 이후 여러 나라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서 경쟁하는 여성들은 횡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늘어났다. 올해에는 한국과 북한이 분단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합동팀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시켰다. 더욱 흥미로운 소식은, 남녀를 통틀어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썰매팀이 봅슬레이 경기에 출전했는데, 이들은 3명의 나이지리아 여자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회 개최 4년 전에 나무로 직접 제작한 첫 썰매로 올림픽 봅슬레이 경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도 마침내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수년 동안의 올림픽게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참여가 겨울 스포츠에서 어떻게 서서히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다. 1924년 샤모니에서는 여성을 위한 단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을 뿐이지만, 2018년에는 두 가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경기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계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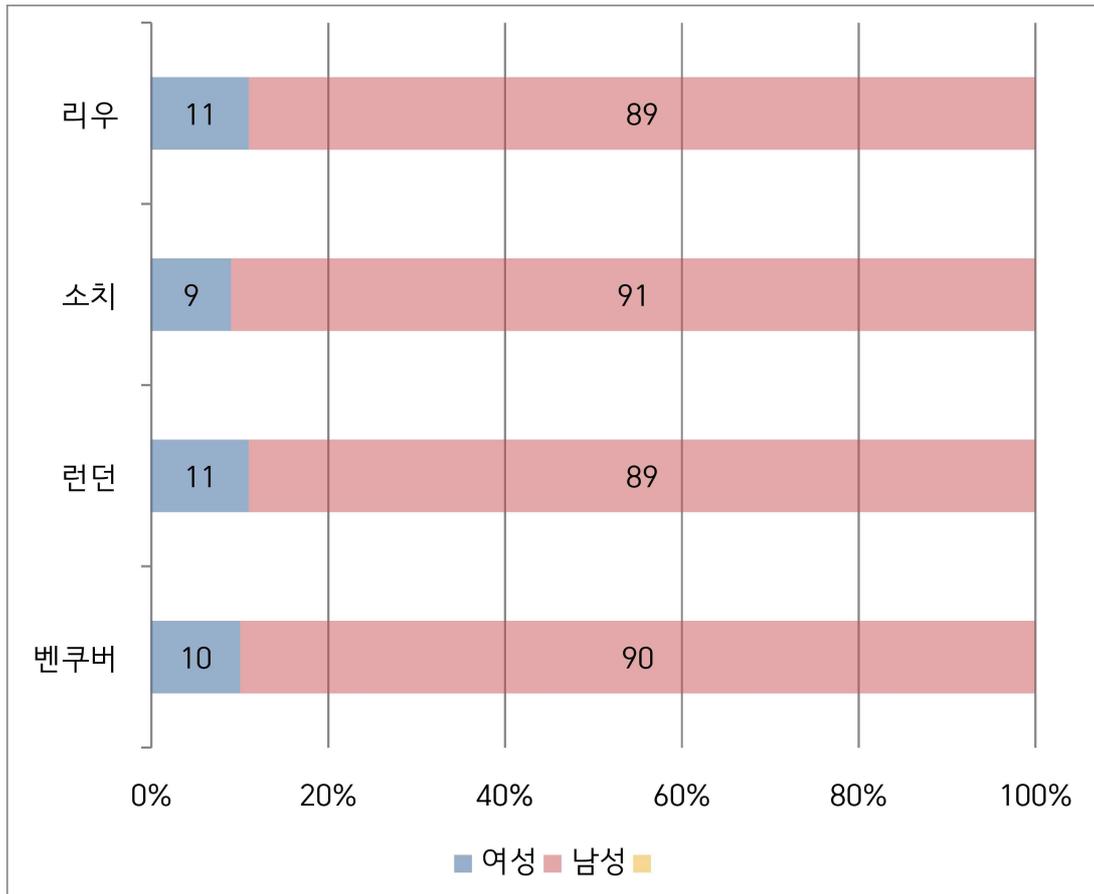
는 여성선수의 비율은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1924년 4%에서 1992년 25%를 넘었고, 2018년에는 43%에 이르렀다(Monica Ulmanu, 2018). 최근 여성선수들에게 더 많은 올림픽 출전기회가 열리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더 많은 여성선수들을 올림픽에 출전시켰으나, 일부는 이 추세를 따르지 않았다.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국은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까지 여성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했고, 현재까지도 자국의 여자선수를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1988년 이후 치러진 모든 동계 올림픽 경기에 자국 여자 대표팀을 항상 출전시킨 유일한 국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여성선수들은 1950년대부터 벌써 많은 서구 국가들보다 20년 이상이나 일찍 코치, 장비, 시설, 그리고 임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자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들은 곧 남자 선수들보다 더 많은 메달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스노우보드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올림픽 종목에 추가된 스포츠를 중심으로, 초기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문을 활짝 열어 준 스포츠 또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선수에게 참여의 문이 활짝 개방되었더라도, 여성이 출전 가능한 종목과 남성선수만이 출전 가능한 종목 수는 대개 같지 않았다. 전통적인 스포츠종목 또한 이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여성 스포츠 선수에게도 참여의 문을 개방하기 시작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성선수의 스포츠 참여는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해 보다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동계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스피드스케이팅 또한 남성과 여성선수에게 동등하게 경쟁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1988년부터 일만큼, 이전까지는 남녀 스포츠 선수에게 동등한 경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1992년은 바이애슬론이, 1998년에는 아이스하키가, 2010년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2014년에는 봅슬레이 순으로 천천히 여성선수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아래의 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의 성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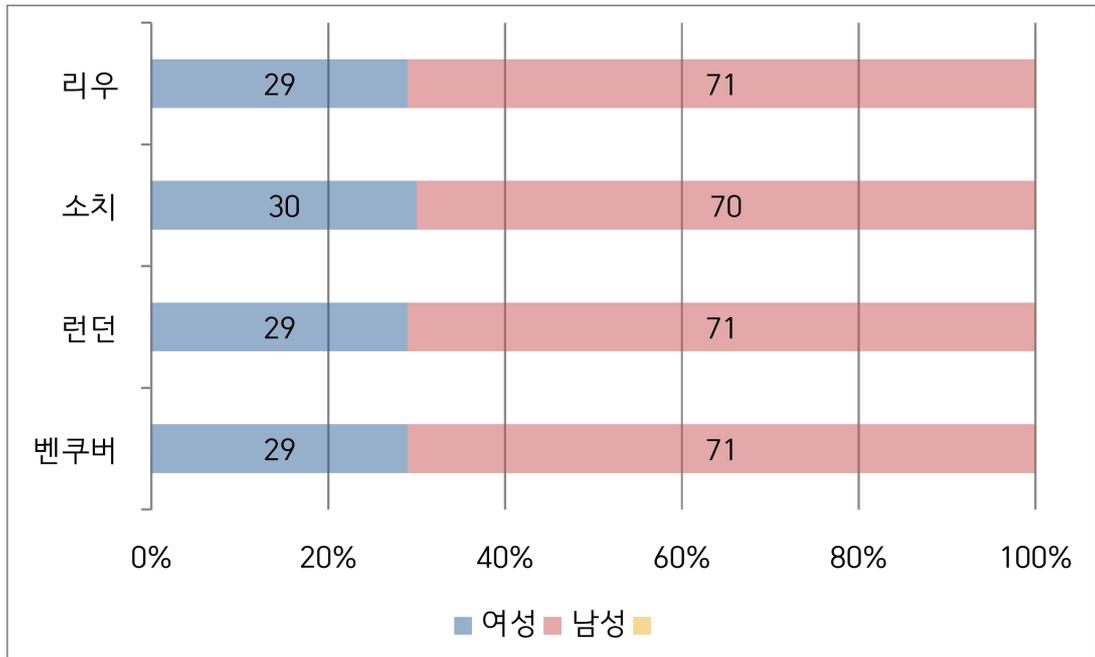
< 그림 1 >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종목별 선수 참가율 (IOC, 2018)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선수들의 참여율을 전체 참여율의 50%를 달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동계올림픽의 경우, 여성 스포츠 종목은 50%이지만, 이곳에는 남녀 혼합 종목 또한 포함된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에서는 여성종목이 47%를 차지했다. 올림픽 위원회와 각종 연합단체들부터 먼저 여성관리자 혹은 여성 행정가들의 역할을 늘려야 하지만, 이러한 스포츠 조직단체에서조차도 14~27%의 낮은 여성 행정가들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IOC는 성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최근 8년간에 개최된 올림픽경기에 참여한 각국 지도자들의 성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 그림 2 >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각국 지도자들의 성비 (IOC, 2018)

IOC 스포츠 디렉터인 크리스토프 두비는, 이것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뤄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Sydney Pereira, 2018). 그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종목과 경쟁의 기회를 더 추가한다면 각국에서의 참여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를 시작하는 첫 발판은 청소년 올림픽(Youth Olympic Game)에서부터 먼저 남녀평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올림픽의 역사상 여성의 참여는 선수, 지도자, 경기위원 할 것 없이 참여율이 소수에 불과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간을 거듭할수록 평등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아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공인한 경기위원(International Technical Official)들의 성비율을, 최근 8년간의 올림픽경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 그림 3 >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경기위원들의 성비 (IOC, 2018)

스포츠 선수 관련 보도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수사학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스포츠 미디어 내에 존재하는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연구되는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행되었던 수많은 연구물들은 스포츠가 놀라운 정도로 남성적인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여성선수들의 존재와 업적의 경시화로 이어지고(Cooky et al., 2015; MacKay & Dallaire, 2013), 여성선수가 성적 대상화 되며(Bissell & Duke, 2007), 어린 소녀로서 취급되고(Mackay, Dallaire, 2009), 남성 선수를 묘사할 때에는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인 ‘선수’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되기보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되는 편협한 시각으로 발견된다(Wolter, 2015)고 주장했다. 이러한 편향된 시각의 미디어 묘사는 스포츠 영역에서 남성 중심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조장한다고 지적받아 왔다(Bruce, 2016).

일반적인 스포츠 미디어 보도와 비교했을 때 올림픽 방송은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프레임(젠더프레임)이 덜 적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Billings et al., 2014). 대신에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성공이나 실패를 묘사할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사기법을 사용하는 것

을 볼 수 있다(Billings et al., 2014). 여전히 남녀 간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앞의 경우와는 명백하게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 예를 들어 2012 하계 올림픽에서는 아나운서들이 여성선수의 성공을 행운 또는 우연의 일치 덕분으로 돌리는 경향을 많이 보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성선수의 성공은 남성선수의 경험 덕분으로 공을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Macarthur et al., 2016). 비록 이처럼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성공과 실패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 언어학적 속성이 분명하게 다르지만, 장기간 비교연구에서는 일관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Billings et al., 2014).

이는 중국의 미디어와 대표팀의 경우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근 개최된 올림픽 참여자들의 성비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 경기의 45%를 여성선수가 출전하고 있으나(IOC, 2017), 2016년 개최된 리우 하계 올림픽의 경우 중국은 61.5%에 달하는 여성 스포츠선수들로 대표단 꾸려 자국 남성선수의 비율을 증가함은 물론 평균적인 올림픽 여성선수 참여 비율을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Chinese Olympic Delegation, 2016). 중국의 여성선수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중국의 스포츠 문화가 그들의 국가주의와도 큰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의 경우 사람들은 자국 출전선수의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이를 심사숙고하기보다는 국가의 위상을 높여 줄 메달의 획득에 더욱더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남상우, 김한주, 고은하, 2010). 실제로 최근 30년 동안 중국의 여성선수들은 모든 하계올림픽에서 남성선수들 보다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해왔고, 이 결과가 2016 리우올림픽의 출전선수 성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Xu et al., 2016).

이처럼 올림픽경기와 같은 국가대항전 스포츠이벤트의 보도와 국가대항전이 아닌 스포츠이벤트 보도와의 수사학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앞서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Watanabe, Nie, Yan (2013)이 수행한, 중국 CCTV의 올림픽 중계방송의 여성선수 보도를 수사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 경기의 경우 국가주의와 정체성, 승리주의와 반승리주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프레임이 성별 구도

에 따른 프레임보다 훨씬 더 지배적으로 사용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 미디어의 경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자국 여성선수들을 묘사할 때, 여성선수들은 여성으로서의 ‘여성성’은 크게 무시되고 메달 획득을 위한 ‘전사’로서의 모습으로만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Bainer, Dong-Jhy, 2011). 이렇게, 중국 여성선수들의 이러한 여권신장을 위한 기회는 큰 의미로 보았을 때 올림픽을 통해 그들 국가의 위상을 높여 준 그녀들의 훌륭한 퍼포먼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Dong, 2005).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간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성/여성선수 관련 보도의 프레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2. 올림픽에 출전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보도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가(기술중심 vs 비기술중심)?

제 3 절 스포츠 종목별 젠더유형

1. 종목별 젠더유형을 판단하는 기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하면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사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 생활 속에서 ‘남자는 남자다운’, ‘여자는 여자다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학계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칭하며, 우리는 사회에서 각각의 성에 기대되는 ‘성(性)역할’에 따라 행동한다(김소정, 2013). 젠더란 생물학적으로 다른 성에게 부여되는 사회문화적 기원의 특성들을 언급하기 위해 생물학적인 ‘성’과 구분지어 사용하는 용어이다(Haig, 2004). 즉, 젠더(gender)는 사회나 문화를 함축하는 사회학적 의미의 성을 뜻하고, 성(性)은 생물학적 의미의 성을 뜻한다(안미현, 2008). 따라서 ‘성 역할 고정관념’은 ‘젠더 역할’과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다. 젠더는 잠재적인 형태로서 우리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홍지은, 김매이, 임용석, 2006).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자는 순종적이며 귀엽고 연약한 존재로 기대되는 반면 남자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기대되는 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스포츠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 또한 생물학적 성에 따른 생리적인 구분과 함께 사회 구조적으로 요구되는 젠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홍지은, 임용석, 2018). 남성적인 특성들이 지배적인 스포츠 씬에서 남성들은 스포츠가 남성으로서의 바람직한 젠더 역할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여겨왔으며, 이는 여성에 어울리지 않고 또한 여성의 역할과 특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김양례, 1998). 전형적인 남성 위주 스포츠의 긴 역사와 남성 우월주의가 만연한 사회의 흐름 속에 스포츠는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사회의 수많은 분야에서 성별 불평등은 물론 젠더 불평등을 생산하고, 끊임없이 재생산해 왔다(조성식, 2003).

많은 스포츠 미디어에서 여성 스포츠선수의 모습은 남성보다 약하고, 남성보다 덜 숙련된 존재인 듯 표현함으로써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모습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는 전통적으로 주로 남성 영토로 간주 되어 왔으며 여성 스포츠선수는 항상 여성을 남성보다 약한 존재로 묘사하는 성 고정관념에 맞서 싸워야 했다. 스포츠가 육체적으로나 극단적일수록, 사람들의 눈에는 더욱더 남성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러한 마음속 장벽으로 인해 여성선수들이 스며들이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자들은 다수의 실험을 거쳐, 아름답고, 우아하며, 공격적이지 않고, 신체적 접촉이 없거나, 미학적으로 즐거운 스포츠가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여성적’ 특성을 지닌 스포츠는 대개 정교하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일반적으로 팀 경기가 아닌 개인 경기가 많다.

반면에, 대면 경쟁이거나, 공격성이 드러나는 경기이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는 스포츠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스포츠로 간주 된다. 선행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남성적’인 특성을 가진 스포츠 경기를 경쟁, 훈련, 체력 및 팀에 대한 헌신 등과 자동적으로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이에 관한 몇몇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스포츠와 성별을 연관 짓는 사람들의 태도에 최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스포츠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 미묘해지는 추세라고 한다(Monica Ulmanu, 2018). 예를 들어, 스노우보드와 프리스타일스키를 포함한 일부 스포츠는 이제 성별이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스포츠 종목들은 대부분 상대 선수와의 신체적 접촉이 없고, 위험하면서도(전통적으로 남성적인 특성) 우아한(전통적으로 여성적인 특성), 개인종목의 스포츠 종목이다. 우아한 스포츠의 대표적인 예로는 피겨스케이팅이 있는데, 이 종목에서 심사 위원은 퍼포먼스의 난이도와 미학적인 면 모두를 고려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중성적인 스포츠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겨는 여성선수들에게 더욱더 개방적인 경향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적인 스포츠로 분류된다.

역사 속에서 스포츠는 남성다운 활동이라고 여겨져 왔고, 그중에서도 특히 거친 신체활동과 공격적인 경쟁을 동반하는 경기는 사회로부터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여성에게는 어울릴 수 없는 활동으로 여겨져 왔다(Butt, 1987). 스포츠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스포츠 씬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것은 고대 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됐다(송형석, 2006). 고대 올림픽 당시 여성이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허용되지 않았다(하응용, 2004). 중세 시대는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체육활동 자체가 침체기를 겪어야 했고(장성수, 2004), 그 이후 근대 올림픽에서조차 여성의 올림픽 참여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오동섭, 2006).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Pierre de Coubertin은 여성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는데, 이는 그가 여성의 스포츠활동이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고, 스포츠는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원영신, 정희준, 1999). 따라서 여성들이 올림픽을 참가하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 일이었는데,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종목의 여성선수 참가가 최초로 허용되었으며, 이어 1912년에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수영종목에 여성의 참가가 허용되었고, 이후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펜싱 종목이 올림픽 조직위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등(IOC, 2017) 여성의 참여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다.

여성에게 허용되는 종목과 허용되지 않은 종목은, 종목의 특성과 사회가 기대하는 성별에 따른 역할에 따라 명백하게 구분되었고, 올림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채택된 몇 가지 종목들은 개최 이후에도 사회적인 반발로 인해 출전이 금지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기도 했다(송형석, 2006). 스포츠는 오랜 시간 남성 지배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성역할 분리로 인해 금녀의 영역으로서 여겨져 왔다(송형석, 2006).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해 사회학자들은 남성 지배적인 스포츠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스포츠 내에 근본적으로

로 존재하는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원영신, 정희준, 1999). 여성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된 것이다. 여성과 스포츠에 관한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 또한 스포츠 속 성평등의 양상과 여성의 스포츠 참여과정, 여성의 성 역할 갈등 등에 초점을 두고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권기남, 권순용, 2012). 이에 대한 초기의 연구로는 Metheny(1972)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각 스포츠를 수행할 때, 퍼포먼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힘’에 있는지 혹은 ‘미적인 아름다움’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스포츠 종목을 젠더역할 관점에서 구분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남성에게 적합한 운동으로는 남성의 성적 역할에 적절하다고 기대되는 강한 신체접촉이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던지거나, 멀리 이동하는 종목으로 럭비나 축구, 격투기, 역도, 투포환 등을 들 수 있으며, 여성에게 적합한 운동으로는 여성의 성적 역할에 적절하다고 기대되는 아름다움, 우아함 등의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나, 가벼운 도구를 사용하고, 강력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하지 않는 운동으로서 댄스나 피겨스케이팅,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배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에 따른 갈등은 여성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Zamarripa, Wampold, Gregory의 연구(2003)에서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부여되는 전통적 남성의 성 역할과 사회적 고정관념이 남성에게 심리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남성에게 요구되는 권력이나 지위, 경쟁, 성공과 같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하문선, 김지현, 2016). 유교적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이 가계의 전통적인 부양자로서 역할했으나,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구조는 현재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남성성과 급변하는 사회 속의 현대 남성성 사이에서 다수의 한국 남성들 또한 다른 차원의 갈등을 겪고 있다(박지영, 2007).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기대되는 고정적인 성 역할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과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비

판이 지속되자 스포츠 미디어에서는 새로운 스타일의 수사기법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연구의 동향 또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가고 있다. 오랜 시간 당연한 요소로서 긍정적으로 여겨지던 한국 남성들의 성 역할은 이제 차별과 억압의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남성들 또한 이러한 실체 없는 사회의 고정관념 속에 속박되어있는 신세이다(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외, 2012).

2020년 도쿄올림픽의 종목 선정에 있어, 최근 올림픽위원회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평등과 종목별 균형적인 성비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공표했으며(홍지은, 임용석, 2018),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과 양성평등 이념을 지지하기 위해 역대 최다 여성종목과 혼성종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성신문, 2018). 스포츠와 성별간 불평등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관점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있다고 주장해왔고, 실제로 여성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스포츠 참여에 있어 배제를 받아야만 했다. 이는 스포츠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성을 강조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차별 또한 존재한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주장 또한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오랜 기간 남성의 싱크로나이즈드 스вим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남성은 리듬체조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남성과 여성의 경기종목에 대한 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은 인정하지만, 여성성이 강조되는 여성적 스포츠종목 또한 남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은 스포츠 참여에 있어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별에 따른 역할의 기대와, 이러한 고정관념이 스포츠 참여에 있어 특정 종목과 성 역할과의 기대불일치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것이다(홍지은, 임용석, 2016).

2. 남성적, 여성적, 중성적 스포츠

오랜 시간 동안 스포츠 속에 내재된 불평등과 사회적 성역할 기대에 따른 불편함은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기저적 사실로 해석되어왔으나, 여성적 종목으로 여겨지는 스포츠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성 또한 여성들이 인지했던 것과 유사한 불편함을 경험한다(홍지은, 임용석, 2016). 이는 스포츠와 생물학적 성에 기대되는 역할, 즉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특정 스포츠 종목의 적합성이 학습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스포츠 종목을 연결 짓기 위해서는 우선 판단하고자 하는 스포츠 종목의 주요특성을 알아야 한다.

우아함이나 아름다운 표현력 등 신체적 미(美)가 퍼포먼스의 주요 특징인 종목들은 대체로 여성적 스포츠로서 여겨진다. Matteo(1984)는 에어로빅, 평균대운동, 발레, 볼룸댄스, 치어리딩, 필드하키, 피겨스케이팅, 체조, 아이스스케이팅, 재즈댄스, 모던댄스, 요가 총 12개 종목을 여성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정의했다. Koivula(1995)는 에어로빅, 발레, 댄스, 피겨스케이팅, 체조, 승마, 싱크로나이즈드 스윘을 여성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정의했다. 또, 최근 수행된 Plaza, Boiche, Brunel, Ruchaud(2017)의 연구에서는 무용, 배턴트월링, 체조, 수영, 롤러, 승마 총 6개 종목을 여성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정의했다.

이에 반해 신체적 접촉이 큰 경기나, 강력한 힘을 요구하는 경기, 경쟁성과 공격성이 큰 특징을 가지는 경기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적 스포츠로 여겨진다. Matteo(1984)는 야구, 농구, 복싱, 조정, 원반던지기, 펜싱, 낚시, 풋볼, 높이뛰기, 허들, 아이스하키, 창던지기, 유도, 가라데, 라크로스, 룽점프, 등산 등 30개 종목을 남성적인 종목이라고 정의했다. Koivula(1995)는 야구, 봅슬레이, 복싱, 격투기, 핸드볼, 축구, 럭비, 레슬링 등 18가지 종목을 남성적 스포츠라고 정의했다. Plaza, Boiche, Brunel, Ruchaud(2017)의 연구에서는 럭비, 아이스하키, 보디빌딩, 축구, 사이클링, 사격, 킥복싱 등 총 23개 종목을 남성적인 종목으로 정의했다.

이 외에 중성적인 성질로 구분되는 스포츠들이 있지만, 연구자들 저마

다의 분류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 중성적인 스포츠는 너무 남성적이지도 않으며 너무 여성적이지도 않은, 종목의 특성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종목들로 여겨진다. Matteo(1986)는 양궁, 배드민턴, 볼링, 카누잉, 다이빙, 골프, 핸드볼, 승마, 조깅, 세일링 등 총 26가지 종목을 중성적인 종목이라고 정의했다. Koivula(1995)는 양궁, 배드민턴, 농구, 볼링, 카누잉, 크로스컨트리 스키, 다이빙, 펜싱, 골프, 마라톤, 세일링, 스쿠바다이빙, 탁구, 수영, 테니스 등 34개 종목을 중성적인 종목으로 주장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한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여성 선수가 남성선수와 동등하게 경쟁하는데 사회적으로 얼마나 빨리, 또는 천천히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를 남성적, 여성적 혹은 중성적으로 나누어 카테고리화 하는데 고려되는 특성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남성적	여성적	중성적
위험함	우아함	남녀 모두 참여율 高
공격적임	아름다움	신체접촉 無
신체접촉 有	신체접촉 無	위험하지만 우아함
빠른 스피드 요구	기술의 정확도와 고도의 기술력 요구	아름답지만 체력소모가 큼
힘, 체력, 팀워크 중심	개인 단위의 경쟁	
매우 경쟁적		

< 표 1 > 스포츠 종목의 젠더유형 분류 기준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보도되는 여성선수 관련 기사에서조차도 자주 등장하는 스포츠 종목이 ‘피겨’ 나 ‘체조’ 와 같이 여성성을 강조하는 종목이거나, 이러한 여성적 종목에 출전하는 여성선수에 대한 프레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역할 고정관념’ 을 재생산하거나, 혹은 이를 강화하는 프레임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적 스포츠 종목에서의 ‘여성성 강조’ 혹은 남성적 스포츠 종목에서의 ‘남성성’ 강조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프레임이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3. 여성선수 관련 기사에서 다루는 스포츠 종목의 유형은 여성적인가?

제 4 절 언론의 특성에 따른 여성보도 차이

1. 종합일간지와 스포츠신문에서 여성보도

최근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가 다매체와 다채널 속에 경쟁을 하게 되면서, 언론사들은 더 많은 수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선정적으로, 더 오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부작용으로 학자들은 언론의 선정성이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선남, 장해순, 정현욱, 2003). 언론의 ‘선정성’ 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단연 ‘스포츠신문’ 일 것이다. 스포츠신문이 특히나 선정성의 문제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스포츠신문이 주로 화보나 만화, 사진, 광고와 같은 직관적인 시각적 자료들로 채워져 있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접촉과 보존이 용이한 매체라는 점 때문이다(김선남, 장해순, 정현욱, 2003).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스포츠신문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보도성향, 기사분석, 선정성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후 온라인 신문과의 경쟁으로 스포츠신문의 구독자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 다매체와 다채널 시대에 스포츠 신문 산업의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방준식, 2014) 또한 이어졌다. 또, 1960대 말 이후 빠르게 성장했던 스포츠신문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당시 체육계의 환경과 스포츠신문의 위상 변화 등 시대적, 역사적 의미를 찾는 연구 또한 수행된 바 있다(김경호, 하응용, 2017).

최근 스포츠신문의 선정성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유명인을 주제로 한 기사가 대부분이다(김선남, 장해순, 정현욱, 2003). 해당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품행, 성격, 외모 등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를 할 때, 보도되는 유명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과다하게 노출 시킨 사진을 게재하거나, 성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필터링 없이 적나라하게 보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행태의 보도 경향은 1890년대 미국의 옐로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흔히 황색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범죄나

특이한 사건, 성적 추문 등을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저널리즘을 일컫는다(안동근, 1998). 1896년에서 1901년까지 전성기를 누린 황색 저널리즘은 ‘영혼이 없는 뉴 저널리즘’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스포츠신문이 ‘선정성’을 대표하는 매체로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국내 스포츠신문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선남, 장해순, 정현욱(2003)는 『스포츠투데이』,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goodday』 총 5가지 스포츠신문을 대상으로 이들의 선정적 보도를 연구했는데, 스포츠신문은 주로 흥미위주의 소재의 사용과 즐거이 전개, 추리소설식 구성과 내용, 극단적이고 과장적인 보도, 추측성·추론위주의 보도, 마지막으로 성차별적 보도를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은 스포츠신문 뿐만 아니라 종합일간지와 같은 일반적인 언론매체 또한 매우 성차별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되는데, 이것은 유교적 문화로부터 기인한 이분법적 성규범과 이로 인해 기대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정경아, 2001). 스포츠신문의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양상은 특히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 관련 보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김선남, 장해순, 정현욱, 2003), 이는 언론이 선정적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인해 상업적인 이윤추구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이상기, 2011). 스포츠신문의 성차별적 보도의 특성으로는 여성다움을 강조하고, 현모양처 역할을 강조하고,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섹스 중심적 성문화를 강조하는 등의 형태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김선남, 장해순, 정현욱, 2003). 이와 유사한 성차별적인 언론보도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에서 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언론보도의 특징을 검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 보도의 영역이다(홍지아, 2017). 스포츠신문 보도가 표현하는 만큼의 선정성은 아니더라도, 성적 불평등과 성차별적 보도양상은 대부분의 국내 종합일간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김훈순, 2004; 현경미, 김원용, 2005; 김희진, 이수민, 2012; 고은하, 김한주, 2004; 남상우, 권오석, 2008). 그러나 스포츠신문과 종합일간지의

성차별적 양상의 비교우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연구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스포츠신문과 종합일간지 모두 성차별적 양상을 보이지만, 차별의 정도가 다를 뿐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2.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에서의 여성보도

뉴스의 프레임과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는 뉴스가 선택적으로 강조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며, 언론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수용자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재가공된 사실이라고 한다(Entman, 1993; Pan & Kosicki, 1993; Gitlin, 1980; Tuchman, 1978). 뉴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담론은 언론사의 특정한 시각에 의해 재생산되고, 대부분의 담론은 주류가 되는 이해집단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게 된다(김훈순, 2004).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언론사들이 여러 정치 권력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음은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이다. 언론사는 각국의 주류를 이루는 정치와 문화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은 뉴스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정치 권력에 의존하게 되고, 상호적으로 호의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김준철, 2002). 이러한 언론사의 친정치적 경향으로 인해, 정치적 권력집단은 손쉽게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즉, 언론은 정치 권력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도 스스로 권력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김정아, 채백, 2008). 이 말은, 즉 동일한 사건을 다루더라도 그들이 대변하는 정치적 권력 집단의 입장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각색하고 구성하여 보도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언론매체는 역사를 통해 굳혀온 그들만의 전통과 이로 인해 형성된 정체성, 정치적 소속 및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제는 항상 명확하게 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자나 편집자 혹은 미디어 매체의 소유주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시간을 거쳐 형성된 언론매체의 성격과 정치적 의제는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Shor et al., 2014). 더욱이, 이러한 정치적 의제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등과 같은 선택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자나 편집자가 해당 기사를 작성해야 할지, 어떤 주제에 관해 다뤄야 할지,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 언론매체를 생산하는 집단의 이러한 구조적인 배경은 종종 생산되는 콘텐츠와 메시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언론의 정치적 의제와 성향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정치적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언론사들은 여성과 관련된 보도에서 각자 다른 선호도를 보일 것인가?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과 관련된 보도가 미디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최근 40년간 수많은 연구들이 신문과 여성관련 보도간의 관계를 연구해왔다(Len-Rios et al., 2005). 일부 연구는 신문의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고(Len-Rios et al., 2005), 일부 연구는 신문의 첫 페이지를 연구하기도 했으며(Zoch & Turk, 1998), 사진기사를 연구하기도 하고(고은하, 김한주, 2004), 비즈니스 면(Greenwald, 1990)을 연구하기도 하고, 스포츠면에서의 여성보도를 연구(Duncan, Messner, & Williams, 1994)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놀라울 만큼 한결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모든 연구에서 여성의 보도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는 빈도는 전체 신문에서 언급한 이름들 중 전체의 20%가 되지 않는 정도라는 것이다(Shor, Rijt, Ward, Askar, Skiena, 2014). 또한,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보도의 양과 빈도의 중요성은 보도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중들은 내용보다 미디어의 신호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Andrews and Carren, 2010).

수많은 선행연구들은 정치적 아젠다가 여성 관련 이슈와 여성 대상의 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Rodgers와 Thors on (2005)은 이러한 원인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구조에 있다고 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기자들은 그들 고용주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자신의 기사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남성 지배적인 환경에서는 남성 위주의 보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적인 언론사일수록 진보적인 언론사에 비해 여성 대상과 여성 관련 이슈에 더욱 소극적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연구는 매우 많다(Shor, Rijt, Ward, Askar, Skiena, 2014). 그 이유는 첫째,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미디어는 종종 페미니즘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제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Brescoll & LaFrance, 2004),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도를 덜 할 것이라는 추측에서이다. 둘째,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미디어는 여성 리포터와 여성 편집자를 채용할 경향이 낮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보도 또한 낮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Rodgers & Thorson, 2003; Zoch & Turk, 1998).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신문은 대체로 정치, 비즈니스, 스포츠와 같은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흥미롭게 다루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교육, 패션과 같이 여성의 존재가 부각되는 주제에 관해서는 더 적게 다룰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Ross & Carter, 2011). 이러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정치성이 여성 관련 보도에 정확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파성에 따른 신문사의 여성 보도율을 비교 연구한 다수의 논문에서는 일부 보수 언론사의 경우가 진보로써 여겨지는 언론사보다 여성 관련 보도를 더 많이 다루는 경향을 보였고(Potter, 1985), 2014년 <Social Science Quarterly>에 게재된 Shor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또한 보수언론이 진보언론과 비슷한 빈도로 여성 대상을 다루고 있으며, 소수의 경우는 보수언론이 진보성향의 언론보다 여성 대상을 더 다루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을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2007년 발표된 Covert와 Wasburn의 연구에서도 1975년과 2000년 사이 발간된 미국의 보수 잡지인 <National Review>지가 여성에 관한 공공정책, 여성에 대한 언론의 재현, 페미니즘, 여성운동 등을 진보적인 잡지인 <The Progressive>지 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 모든 선행연구들은 수집된 기사의 수가 특정 결론에 이를 만큼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디어의 성과성과 여성 보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성 관련 보도일지라도 보도기사가 다루는 주제나 타입이 두 잡지사 모두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신문사의 정치적인 입장과 여성 관련 보도율에 관한 관계는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이렇다 할 결정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보수지나 진보지 할 것 없이 양측 신문 모두 남성 대상과 관련 보도가 여성 대상과 관련된 보도보다 훨씬 더 자주, 지배적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여성 대상 관련 보도는 일관되게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선행연구들이 밝히고자 했던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과 여성 대상 보도량의 관계가 올림픽 기간 중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실제로 신문사의 성과성에 따라 여성 선수 관련 보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했다.

연구문제 4. 남성/여성선수 기사의 양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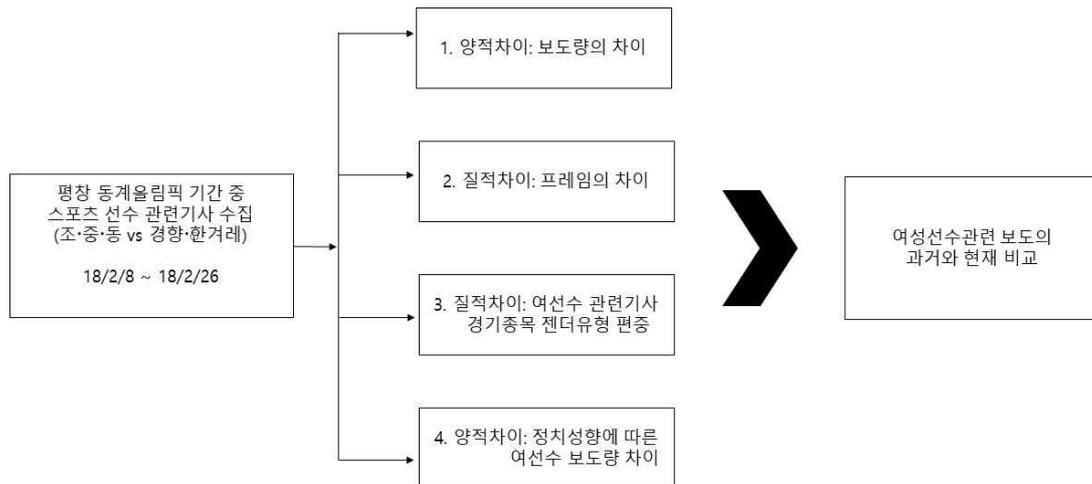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모형

각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언론보도 내용분석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이란 텍스트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정의하고, 유목화하고, 분석단위를 결정하고, 이를 양적으로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사회과학, 교육학, 심리학에서도 개인의 지적 및 정서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이러한 내용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언론매체에 나타나는 주된 메시지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탐구하고, 메시지가 함축하는 특별한 의미나 특성을 객관화함으로써 변인 간의 관계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내용분석의 트렌드는 현 시대가 디지털 기반의 시대인 만큼 온라인 신문기사나 댓글, 방송 진행자의 반복적인 코멘트 등의 디지털 기록물들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온라인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하고자 했으나, 온라인 신문의 경우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 분석대상은 지면 기사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올림픽 기간 중 신문에 보도되는 운동선수의 성별이 기사의 양적, 질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스포츠 미디어의 성편향적 행태에 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데 학문적 의의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주류 인쇄매체인 5개의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올림픽 기간 중 여성 스포츠 선수와 남성 스포츠 선수가 양적 혹은 질적으로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의 유무를 밝히고,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보도에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 그림 4 > 연구모형: 평창 동계올림픽 신문기사 내용분석 과정

위 모형을 바탕으로 밝히고자 하는 4가지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번과 4번은 성별에 따른 보도량의 차이와, 성별과 신문사의 정치적 견해와의 양적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문제이며, 연구문제 2번과 3번은 성별에 따른 보도프레임의 차이와, 여자선수 보도기사 중 여성성을 강조하는 여성적 스포츠 종목의 보도율이 높았는지를 밝혀 질적 차이를 규명하는 문제이다.

Q1.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 보도기사에 양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Q2. 올림픽에 출전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보도프레임에 차이가 있는 가(기술중심 vs 비기술중심)?

Q3. 여성선수 관련 기사에서 다루는 스포츠 종목의 유형은 여성적인가?

Q4. 남성/여성선수 기사의 양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제 2 절 실험 설계

1. 연구대상 및 분석기간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얼마나 유명한 신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국적 지명도와 발행 부수 및 광범위한 스포츠 관련 보도량 등을 판단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으며(Vincent et al., 2002), 올림픽 출전 선수 관련 글기사의 보도량과 보도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수 매체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진보 매체로 구분하여 이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정파성에 관한 구분은 신문의 정파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사례(김경희, 노기영, 2011; 하승희, 이민규, 2012)를 참조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으로 대변되는 신문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있고, 대표적인 진보언론으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있는데, 백선기(1997)의 말을 빌리면, ‘조·중·동’은 정치 이념으로서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남북관계’에서는 ‘반공주의’ 또는 ‘반주체 사상’을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경제 이념으로는 ‘실물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국내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그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경우 정치 이념은 ‘진보주의’를 표방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점진적 통일주의’를 지향하며, 경제 이념은 ‘실명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진보적이며 혁신적인 경향을 띄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대안적이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신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김수정, 정연구(2018)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보수적인 입장을, 『한겨레』, 『경향신문』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동의했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개념과 구분이 최근 들어 정치적 지형의 변화와 함께 다소 혼란스러워졌으나,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이념적 지형은 대체로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에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본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진영으로, 『한겨레』와 『경향신

문』은 진보진영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김정아, 채백, 2008).

분석 기간은 2018 평창올림픽 개최 기간인 2018년 02월 09일부터 02월 25일까지를 포함하여 개막 하루 전인 02월 08일과 폐막 하루 후인 02월 26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했다. 이는 기존 연구가 올림픽을 전후로 약 일주일간의 기간을 포함(고은하, 2008)하여 분석한 것에 비해, 보다 경기력 위주의 보도양상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되는 신문기사는 온라인기사가 아닌 인쇄된 지면 기사를 사용하였으며, 온/오프라인 통합 미디어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인 ‘아이서퍼’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최소 분석단위는 올림픽 기간 중 올림픽 출전 선수 관련 글 기사로 하였고, 분석 기간 중 올림픽 경기 외적인 스포츠 경기, 예를 들어, 승마 경주 혹은 농구나 배구와 같은 겨울 시즌 종목에 관한 기사는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흥미위주의 보도는 종목의 성적과 인기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최근의 트렌드로 하나의 기사가 한 선수의 경기력만 서술하는 것이 아닌, 테마별로 여러 선수를 모아 한꺼번에 나열한 기사 또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선수의 성별과 보도경향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자나 여자 단체전 경기에 대한 보도의 경우 단일적으로 남성기사, 여성기사로 나누어 코딩하였으며, 남녀 혼성경기의 경우는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분류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자료의 분류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글로만 구성된 기사의 내용분석이다. 분석 대상에서 논평이나 경기 결과표, 정치적 과별싸움의 논쟁이나 특정 종목의 인기로 인해 제작된 패러디물 등과 같은 흥미위주의 기사나, 경

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논평이 제외된 이유는 대부분이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이 없는 중계권이나 조직위, 시설, 정책, 각 국가의 메달 획득 순위, 사회적 이슈 등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신문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으로는 기사의 수량을 비교하는 양적 분석과, 글기사에 기술된 내용의 프레임을 파악하는 질적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질적 분석에서는 분석의 종류를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선수의 경기 활약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 실질적인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보도를 했는지 혹은 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성격이나 외모 등의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했는지를 비교하는 수사학적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선수의 성별에 따라 ‘기술중심’의 묘사를 하는 경향이 강한지, 혹은 ‘비기술중심’의 묘사를 하는 경향이 강한지를 밝혀 성별에 따른 프레임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특정 스포츠 종목이 ‘여성적인 스포츠’ 혹은 ‘남성적인 스포츠’로 표현되어 실제로도 각 성별에 어울리는 경기가 미디어의 주목을 더 받고, 성별과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는 미디어의 주목을 덜 받는지를 밝혀 성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프레임이 사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별에 따른 보도 불평등의 차이가 진보와 보수 미디어에서 양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밝혀 정치적 의제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했다. 또한, 앞서 언급된 많은 선행논문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스포츠 미디어의 성편향적 행태는,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을 보다 심도 있게 구분하여 과거 스포츠미디어와 비교하여 현재 스포츠미디어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비교해 어떠한 점이 개선되고 있고, 어떠한 점이 여전히 성편향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문제1의 경우 단순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남성/여성 기사의 빈도수를 분석하였고, 연구문제2의 경우는 보도기사에 나타난 프레임을 각각 기술중심/비기술중심 서술로 나누어 각 5점씩 총 10점을 매겼다. 기술중심 서술의 경우는 헌신(1점), 용기(1점), 기술(1점), 침착함(1점), 경험(1점)이 분명하게 강조되어 서술되는 경우(총 5점)를 말하고, 비기술중심 서술

의 경우는 외모(1점), 나이(1점), 사생활(1점), 고정관념 강화(1점), 여성성·남성성 강조(1점)의 내용이 분명하게 서술되는 경우(총 5점)로 한정했다. 이렇게 합산된 점수는 각 총점을 이용하여 첫 번째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보다 확실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번째로 기술중심의 점수와 비기술중심의 점수를 각각 비교하여 기술중심, 비기술중심, 동점, 총 3가지로 나눈 것을, 기사에 나타난 성별과 교차분석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문제3의 답을 구하기 위해, 기사에서 다루는 선수의 성별과 스포츠 유형의 차이를 남성적/여성적/중성적 3가지로 나누어 교차분석 하였고, 연구문제4의 답을 구하기 위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남녀 기사의 보도량을 교차분석하여 성별과 신문사의 정파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신뢰도 있는 분석을 위해 본격적인 코딩에 앞서 분석 유목 및 분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코더는 몇 차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분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그다음, 전체 신문기사 프레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코더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각 코더가 점수를 낸 기술점수와 비기술점수를 이용하여 급내상관계수(ICC)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코더가 점수를 매긴 기술점수와 비기술점수가 신뢰가 가능한 수준인지를 밝혀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자 했다.

제 3 절 변인 측정

1. 프레임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기사에 사용된 주요 프레임을 측정하기 위해 질적 내용을 기술중심과 비기술중심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기술중심의 카테고리는 선수의 경기와 관련된 기사에서 운동선수의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전개하는 방식을 말하고, 비기술중심의 카테고리는 선수의 경기와 관련된 기사에서 운동선수의 퍼포먼스보다 운동수행능

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가족관계나 출신지,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 인기도, 연애사, 과거의 경험 등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특히, 성편향성을 중심으로 스포츠 미디어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프레임에 관한 수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선수들에 대한 외모나 성격에 대한 묘사를 하거나,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지어 성별에 어울리는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선수’라는 타이틀보다 ‘여성’이라는 성별을 더욱 강조하여 표현하거나, 이 외 경기와 무관한 부적절한 내용 혹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모두 비기술중심의 서술에 포함되었다.

기술중심의 서술과 비기술중심의 서술을 구분하기 위한 척도로 Billings, Xu, Scott, Lewis, Sharpe (2017)의 분류법을 참고하였으며, 세부 측정사항의 항목을 나누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2018)를 참고하였다. 기술중심의 보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헌신, 용기, 기술, 침착함, 경험의 5가지로 구분을 하였으며, 체력과 실력에 대한 언급은 모두 ‘기술’ 항목으로서 코딩되었다. 반면, 비기술중심의 보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모, 나이, 사생활, 고정관념 강화, 여성성/남성성 강조 5가지로 구분했다. ‘고정관념 강화’와 ‘여성성/남성성 강조’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예시를 통해 해당 항목들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2.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의 젠더유형

1) 프레임의 구분

스포츠 미디어에 보도된 선수 관련 기사 내용은 아래 열거된 항목들의 유무에 따라 코딩되었다.

기술중심	예시	비기술중심	예시
헌신	“고통을 참으며 달려왔다”, “오랜 노력의 끝에...”, “죽을만큼 힘들었지만 특유의 근성으로 버텼다” 등	외모	“뽀얀 얼굴의...”, “곱고 약한 얼굴” “예쁜 얼굴에 실력까지 겸비” 등
용기	“배짱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다”, “그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일단 물어보면 안다” 등	나이	“열여덟 소녀가..”, “여자선수의 나이가 매우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몸 관리와 기술이 훌륭하다”, “35살 노장”,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은 나이” 등
기술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집중력을 발휘했다”, “특유의 장기인 아웃코스 돌파로 달려나갔다”, “훌륭한 기술과 놀라운 스타트” 등	사생활	(혼성경기에서) “둘은 연인관계인 적이 없었다.”, “투병을 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커밍아웃 피겨선수인 애덤 리펀은...” 등
침착함	“엄청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침착하게 경기를 이어갔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였다” 등	고정관념 강화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 선수의 폴스피드를 따라갈 수 없어야 정상이지만...”, “여자한테는 안 나오는 자세”, (남자선수에게) “남자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연하다” 등
경험	“3번째 올림픽 출전이다”, “앞서 월드컵에서 우승한 바 있다”, “강국들과 대결하며 경험을 쌓은 것이 밑거름이 됐다” 등	여성성/남성성 강조	“소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아줌마 파워”, “어리고 수줍은 소녀”, “남자만큼의 힘을 보여준다” 등

< 표 2 > 기술중심/비기술중심 측정요소 및 분류표

2)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의 ‘여성적, 남성적, 중성적’ 구분

	남성적	여성적	중성적	참고
알파인스키			√	Nathalie Koivula, 1995
바이애슬론	√			Monica Ulmanu, 2018
봅슬레이	√			Nathalie Koivula, 1995
크로스컨트리			√	Nathalie Koivula, 1995
컬링		√		Monica Ulmanu, 2018
피겨스케이팅		√		Monica Ulmanu, 2018
프리스타일 스키			√	Monica Ulmanu, 2018
아이스하키	√			Nathalie Koivula, 1995
루지	√			Nathalie Koivula, 1995
노르딕복합	√			Monica Ulmanu, 2018
쇼트트랙			√	Nathalie Koivula, 1995
스켈레톤	√			Nathalie Koivula, 1995
스키점프	√			Monica Ulmanu, 2018
스노보드			√	Monica Ulmanu, 2018
스피드 스케이팅			√	Nathalie Koivula, 1995

< 표 3 >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의 젠더유형 분류

앞서 언급된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종목을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인지되는 젠더유형으로 위와 같이 분류했다.

위험성이 있거나 큰 힘이 요구되는 스포츠는 남성적인 스포츠로, 평가에 있어 우아하거나 심미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여성적인 스포츠로, 그리고 이 양측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스포츠는 중성적인 스포츠로 분류했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문제 1의 검증

연구문제 1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 관련 보도기사에 양적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검증하기 위해 총 5개의 신문사에서 422건의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다. 신문사별로는 경향신문에서 102건, 한겨레에서 83건, 조선일보에서 100건, 중앙일보에서 48건, 동아일보에서 89건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다른 신문사들보다 수집한 기사의 갯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앙일보는, 흥미위주의 보도와 정치적인 내용 등 올림픽 경기 자체보다는 올림픽을 둘러싼 지엽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기사들의 비중이 매우 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다수의 기사가 모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총 수집된 422건의 기사 중 여성선수 관련 기사는 205건으로, 전체 기사의 약 48.8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문사별로는 경향신문이 총 102건의 기사에서 48건의 여성선수 관련 기사를(47.05%), 한겨레가 83건의 기사 중 45건을(54.21%), 조선일보는 100건의 기사 중 46건을(46%), 중앙일보는 48건의 기사 중 23건을(47.92%),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에서는 89건의 기사 중 43건(48.31%)으로, 여성선수 관련 기사가 남성선수 관련 기사의 보도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국가 간 메달의 경쟁이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에 따른 이분법적인 구분보다 더 중요시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 기간에는 여성선수 관련 보도량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Bruce, Hovden, Markula, 2004; 고은하, 2008).

위와 같은 결과값에 대한 코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코딩한 결과값을 2명의 코더들이 코딩한 결과값과 대조해보았다. 이때 세 코더의 결과값이 모두 일치한 기사는 총 410건으로, 약 97.16%의 일치도

를 보였다. 본 연구자가 빈도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코더 간 신뢰도’가 아닌 ‘코더 간 일치도’를 본 이유는, 성별이 연속변수가 아닌 명목변수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코딩을 위해 수집된 422건의 기사를 각 신문사별로 구분한 표이다.

[단위: 건]

	남성기사	여성기사	총계
경향신문	54	48	102
한겨레	38	45	83
조선일보	54	46	100
중앙일보	25	23	48
동아일보	46	43	89
총계	217	205	422

< 표 4 > 성별로 구분한 남녀기사의 빈도수

제 2 절 연구문제 2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올림픽에 출전한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보도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신문기사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질적으로 기술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지는지, 비기술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미디어의 여성선수 관련 보도가 다소 새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 (Bruce, 2016; Thorpe, Toffoletti, Bruce, 2017)과 같이, 여성은 연약한 존재이며, 선수라는 사회적 위치보다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이 더 부각되는 등의 과거 스포츠 미디어의 성편향적인 보도 모습들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더 3명은 기술중심의 측정요인 5가지, 비기술중심의 측정요인 5가지로 총 10가지의 요소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기사 내에 묘사된 각 요소들에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구하였다. 즉, 기술중심 5점과 비기술중심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모든 기사의 내용을 비기술적 및 기술적

요소로 분석하여 각자 언급된 비율을 구한 뒤, 독립변수인 성별에 따라 남성 기사의 기술적/비기술적 요인이 언급된 평균값과 여성 기사의 기술적/비기술적 요인이 언급된 평균값을 구해 질적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우선, 코더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코더가 점수를 낸 기술점수와 비기술점수를 이용하여 ICC(급내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p<0.05, **p<0.01)

항목	급내상관관계	95% 신뢰구간		p
		하한	상한	
기술점수	.977	.457	.990	.000**
비기술점수	.904	.374	.953	.000**

< 표 5 > 기술점수와 비기술점수를 이용한 급내상관계수

기술점수를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977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기술점수를 살펴보면, 신뢰도의 값이 0.904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연구문제2의 답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성별에 따른 기사의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였다.

성별

(*p<0.05, **p<0.01)

변인	남성기사		여성기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술점수	3.54	.569	2.02	.564	27.545	.000**
비기술점수	2.95	.728	3.16	.490	-3.403	.001**

< 표 6 > 성별에 따른 기사의 프레임 유형 차이 1 (독립표본 t검정)

위 표는 성별에 따라 남성기사와 여성기사의 기술/비기술점수 차이를 비교한 표이다. 기술점수를 살펴보면, 남성기사의 평균은 3.54, 여성기사

의 평균은 2.0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7.545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비기술점수를 살펴보면, 남성기사의 평균은 2.95, 여성기사의 평균은 3.1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403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성기사는 여성기사보다 기술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기사는 비기술중심의 서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문제2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별과 각 서술형태를 교차분석(카이제곱) 해 보았다.

(*p<0.05, **p<0.01)

		서술형태			총계	X ² (p)
		기술중심	비기술중심	동점		
성별	남성기사	건	115	21	81	217
		%	53.0%	9.7%	37.3%	100.0%
	여성기사	건	3	174	28	205
		%	1.5%	84.9%	13.7%	100.0%

< 표 7 > 성별에 따른 기사의 프레임 유형 차이 2 (카이제곱 검정)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기사 중 기술중심의 서술이 53.0%(115건), 비기술중심의 서술이 9.7%(21건), 동점이 37.3%(81건)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살펴보면, 기술중심의 서술이 1.5%(3건), 비기술중심의 서술이 84.9%(174건), 동점이 13.7%(28건)으로 나타났고,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²는 251.984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기사의 경우 기술중심>동점>비기술중심 순으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기사의 경우 비기술중심>동점>기술중심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성기사의 경우 기술중심이, 여성기사의 경우 비기술중심의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여성스포츠’ 관련 기사에서는 여전히 여성선수의 외모나 성격, 가정사 등 비스포츠 관련 측면

이 이슈화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과거 성편향적 보도경향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성선수의 보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요소들이 점점 더 많은 여성선수의 보도에서도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남성선수 관련 기사 또한 여성선수 관련 기사와 마찬가지로 선수의 사생활과 과거의 이야기, 선수의 패션감각 혹은 외모 등을 매우 비중있게 다룬다는 점이다. 최근 다루어지는 여성선수 관련 기사들에서는, 여성선수의 힘과 체력, 운동 능력을 동등하게 다루면서 남성선수의 강인한 이미지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반가운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이처럼 여성선수의 운동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기사의 양은 매우 적은 것이 다소 아쉬울 따름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 스포츠선수들은 과거보다 점점 더 진지한 선수의 이미지로, 선수로서의 운동수행능력을 중심으로 묘사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의 결과(Bruce, 2016)에서처럼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경기 보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대항전의 경우 메달의 획득 여부가 선수의 생물학적 성별보다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토니브루스 교수의 말처럼, 타국 여성선수의 보도를 할 때보다 자국의 여성선수를 보도할 때, 더 진지한 선수의 이미지로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점이다. 타국 여성선수의 경우 자국의 여성선수보다 더 여성화하여 표현되거나 비교적 과도하게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많은 여성선수 관련 보도기사들에서 여성선수는 이제 그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도 단호한, 냉철하고 프로다운 용맹한 이미지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중성적이거나 남성적인 스포츠 종목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피겨와 같은 여성적 종목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변화인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 3 절 연구문제 3의 검증

연구문제 3 ‘여성선수 관련 기사에서 다루는 스포츠 종목의 유형은 여성적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여성선수 관련 기사들 중 여성적 스포츠 종목을 보도한 기사의 개수를 추려 총 여성선수 관련 기사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수집된 전체 여성 관련 기사 205건 중 여성적 스포츠 종목에 관한 기사는 총 54건이었다. 이는 총 여성선수 관련 기사 내 여성적 스포츠 종목 관련 보도가 전체 기사의 26.3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신문사에 따라 독립적인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향신문 내 여성선수 보도기사 48건 중 9건(18.75%)만이 여성적 스포츠 종목 관련 보도였고, 한겨레에서는 45건 중 14건(31.11%)이, 조선일보에서는 46건 중 9건(19.57%)이, 중앙일보에서는 23건 중 9건(39.13%)이,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에서는 43건 중 13건(30.23%)이 여성선수 보도기사 중 여성적 스포츠 종목 관련 기사로, 평균 27.76%의 저조한 비율을 차지함을 확인했다.

연구문제3의 답을 구하기 위해, 기사에서 다루는 선수의 성별에 따라 스포츠유형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제곱)을 사용하였다.

		스포츠유형			총계	X ² (p)
		남성적	여성적	중성적		
성별	남성기사	건	57	41	119	4.669 (.095)
		%	26.3%	18.9%	54.8%	
	여성기사	건	40	54	111	
		%	19.5%	26.3%	54.1%	
					217	
					205	
					100.0%	
					100.0%	

< 표 8 > 기사 내 성별과 스포츠종목유형의 관계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기사 중 남성적종목에 대한 기사는 26.3%(57건), 여성적종목 18.9%(41건), 중성적종목이 54.8%(119건)으로 나타났다. 여성 기사를 살펴보면, 남성적종목이 19.5%(40건), 여성적종목이 26.3%(54건),

중성적종목이 54.1%(111건)으로 나타났고,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2 는 4.669이고, 유의확률은 0.09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에 대한 세 코더의 결과값이 일치한 기사는 422건 중 414건으로서 98.10%의 일치도를 보였다. 본래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3의 경우 분류의 기준이 매우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의 일치도가 나와야 하겠으나, 코더들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성기사와 여성기사 모두 중성적 종목에 관한 기사가 다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던 ‘여성성/남성성 강조’ 혹은 ‘새로운 형태의 차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선수 관련 기사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해도, 자주 등장하는 여성선수 관련 기사가 피겨나 체조와 같은 ‘여성적’ 스포츠 종목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이는 남녀선수 간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여성성과 남성성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프레임이 사용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의 이유로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동계올림픽 종목에서 ‘여성적’ 종목은 피겨와 컬링 2가지 종목뿐이므로, 전체 종목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보도율 또한 저조하다. 둘째, 올림픽은 국가대항전 경기인 만큼, 성적이 좋지 못하면 흥미성 위주의 보도 또한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국내 피겨종목 스타플레이어의 부재는 낮은 보도율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금번 여자 컬링 종목의 경우 우수한 성적과 퍼포먼스로 인해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으나, 이 또한 한 종목의 흥행일 뿐 다른 흥행 종목들 또한 다양했으므로, 객관적으로 미디어에서 압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더불어, 이러한 흥미성 위주의 기사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객관적인 정보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사가 아니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또한 제외되었다.

제 4 절 연구문제 4의 검증

연구문제 4 ‘남성/여성선수 기사의 양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총 5국의 신문사를 진보와 보수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진보 언론사는 ‘경향신문’ 과 ‘한겨레’ 로, 보수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로 나누어 코딩한 결과, ‘경향신문’ 과 ‘한겨레’ 는 총 185건의 기사 중 93건(50.27%)의 여성선수 관련 보도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는 총 237건의 기사 중 112건(47.26%)의 여성선수 관련 보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진보 신문지는 총 기사에서 여성선수 관련 보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27%이었던 반면 보수 신문지에서는 47.26%로 진보 신문지에서 여성선수의 보도 비율이 3.01%정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4의 답을 구하기 위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남녀기사의 보도량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제곱)을 사용하였다.

		신문		총계	X^2 (p)	
		진보	보수			
성별	남성기사	명 %	92 42.4%	125 57.6%	217 100.0%	.378 (.557)
	여성기사	명 %	93 45.4%	112 54.6%	205 100.0%	

< 표 9 > 성별과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기사는 진보가 42.4%(92건), 보수가 57.6%(125건)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사를 살펴보면, 진보가 45.4%(93건), 보수가 54.6%(112건)으로 나타났고,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2 는 0.378이고, 유의확률은 0.55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수신문의 기사의 양이 전체적으로 많을 뿐이지,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남녀기사의 빈도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스포츠 미디어에서 여성스포츠의 소외현상은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 날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오는 모습이다. 그러나 올림픽과 같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스포츠이벤트의 경우는 이러한 스포츠에서의 ‘일반적인’ 여성소외 현상에서 예외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스포츠 지면의 10%에 불과하던 여성스포츠 보도가 올림픽 기간에 40%를 넘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대항전의 경기에서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보다 메달 획득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올림픽위원회의 ‘성평등’을 이룩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로 인한 여성선수 참여 종목의 증가 덕분이며, 셋째로는 획기적인 스타의 탄생으로 인한 특정 종목에 대한 관심 증가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올림픽과 성 편향성을 주제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하계올림픽 종목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동계올림픽 종목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비교적 적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까지도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에 비해 여성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며, 최근 올림픽 출전 여성선수의 비율을 높이고자 종목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올림픽위원회의 노력 덕분에 향후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평가 척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성공적인 ‘성평등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발행된 5가지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올림픽 기간 중 성편향적인 보도 경향을 관찰하고, 현재 시점에서 국내 스포츠 미디어의 보도 행태를 평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건전한 스포츠 미디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5개의 국내 대표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남/녀 기사의 보도량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총 수집된 기사 422건의 기사 중 여성선수 관련 기사는 205건으로, 전체 기사

의 약 48.8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전의 경기에서는 여성 관련 보도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는 앞선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올림픽 기간에는 여성선수가 남성선수와 동등하게 주목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집된 기사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기사를 통해 보도되는 선수의 성별에 따라 분명한 프레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77페이지 <표5>와 <표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남성선수 관련 기사의 경우는 선수의 퍼포먼스와 기술을 중심으로 서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면 여성선수 관련 기사의 경우 선수의 외모나 성장배경, 성격 등 비기술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짙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일부 선행연구(Duncan, 1990; Pirinen, 1997)에서 지적한 다음과 같은 가설: ‘여성선수 관련 기사에서 여성적 종목의 보도가 많아지는 것은 여성선수가 남성선수와 동등하게 대우받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성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프레임이 사용된 것이다.’ 은,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스포츠 종목의 젠더적합성’ 에 따른 ‘여성성/남성성 강조’ 의 모습이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올림픽 보도는 국가주의적 성향을 띄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넷째, 언론사의 정치성과 여성 관련 보도율을 비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의 정파성과 성별에 따른 보도량의 상관관계에 대해 결정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보수지나 진보지 할 것 없이 양측 신문 모두 남성 대상과 관련된 보도가 여성 대상과 관련된 보도보다 훨씬 더 자주, 지배적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여성 대상 관련 보도는 일관되게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신문사 모두 남성선수와 여성선수의 보도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고, 단지 남/녀 기사 모두 보수신문의 기사가 양적으로 많았을 뿐이었다(82 참조). 그러나 본 연구의 수집된 샘플만으로는 해당 결론을 일반화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수집의 대상으로 선정한 신문사 또한 진보가 2곳, 보수가 3곳으로 보수지의 기사가 더 많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보수지의 기사가 양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

를 갖는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객관적인 기사의 빈도수를 비교하기 위해 흥미성 위주의 기사는 모집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 ‘흥미’ 또한 한가지 프레임으로써 사용하여 더욱더 다양한 내용분석 연구를 전개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흥미성 위주의 기사는 특정 종목의 흥행과 인기에서 기인하고, 이는 특정 종목의 노출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가 없이는 보도 대상의 성별과 보도 빈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녀 혼성경기에 관한 기사는 다루지 않았는데, 향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혼성경기 보도내용의 프레임은 남/녀 선수 보도에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밝히는 것도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성평등 이슈와 스포츠 미디어에 관한 연구에서는, 단순히 기사의 빈도수를 비교하여 중요도를 가늠하거나 내용분석을 통해 프레이밍에 대한 이분법적 차이를 대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에 맞게 스포츠 미디어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포착하고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체에 의해서, 어떤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신생 종목의 등장에 발맞춘 활발하고 지속적인 스포츠 종목별 젠더적합성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질적 분석을 시도해보아야 할 것이다.

제 6 장 참고문헌

- 강재원, 김선자. (2012). 인터넷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의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56(2), 143-166.
- 강혜경. (2009). 유교문화 속의 여성의 자아. **유교문화연구**, 30, 349-365.
- 고문정. (2018). 누가 온라인 뉴스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뉴스를 공유하는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5(1), 5-51.
- 고은하. (2008). 아테네올림픽 신문 보도의 내용분석: 성별 보도량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1), 205.
- 고은하, 김한주. (2004). 한국 신문에 나타난 여성스포츠 사진 보도의 이데올로기. **체육과학연구**, 15(4), 172.
- 고은하, 김한주. (2011).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의 운동효과 가치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5(3), 109-120.
- 곽정현, 이선희. (2014). 미디어에 투영(投影)된 여성스포츠 선수의 외모.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2(1), 52.
- 곽정현, 이선희. (2014).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스포츠의 방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6), 299-311.
- 권기남, 권순용. (2012). 여자축구선수들의 성 정체성 갈등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체육학회지**, 51(3), 39-51.
- 김경모. (2003). 텔레비전 뉴스의 성 역할구도 재생산 보도관행과 저널리스트의 성차. **한국방송학보**, 17(3), 197-238.
- 김경모, 김연정. (2005). 일간지의 여성인물 보도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7(41).
- 김경호, 하응용. (2017). 국내 첫 스포츠신문의 창간과 일간스포츠의 변천. **체육사학회지**, 22(2), 1.
- 김경희. (1998). 뉴스생산과정에서의 여성소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14(1), 145-182.
- 김경희. (2015). 뉴스 구성 관행과 고정관념의 재생산. **미디어, 젠더 & 문화**, 5(45).

- 김경희, 강혜란. (2016). 여성의 과소재현과 상징적 소멸. **미디어, 젠더 & 문화**, 31(3), 53-96.
- 김경희, 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1), 361-387.
- 김경희, 이기형, 김세은. (2015). 기사 구성과 특징으로 본 '문화 저널리즘'의 변화상과 함의'. **한국언론정보학보**, 74, 136-176.
- 김미숙. (2010). 박정희 정권하 한국여성스포츠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2), 109-122.
-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TV 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2), 41-76.
- 김선남, 장해순, 정현욱. (2003). 스포츠신문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3(1), 33-68.
- 김성진. (2014).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미국의 타이틀 나인(Title IX)을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4), 59.
- 김세은. (2018). 뉴스는 여성을 어떻게 다루는가?. **방송기자**, 41, 16-19
- 김세은, 김수아. (2007). 저널리즘과 여성의 이중 재현. **한국언론학보**, 51(2), 226-255.
- 김소정. (2013).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1), 89.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279-317.
- 김수정, 정연구. (2018). 한국 언론의 정치편향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88, 110-145.
- 김양례. (1998). 스포츠 사회학 : 미디어 스포츠의 남녀 스포츠 보도경향과 수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37(3), 64.
- 김영지, 하승태. (2014). TV 뉴스에 대한 적대적 매체지각과 인터넷 뉴스의 대안적 이용가능성.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8(2), 57-87.
- 김원용, 이동훈. (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49(6), 166-197.

김은미, 선유화. (2006). 댓글에 대한 노출이 뉴스 수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0(4), 33-64

김정아, 채백. (2008). 언론의 정치 성향과 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232-267.

김준철. (2002). 논단 : 언론의 권력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의미 (Articles : Theoretical Interpretation in Media Power). **출판잡지연구**, 10(1), 16.

김혜미, 이준웅. (2011). 인터넷 뉴스와 댓글의 뉴스 프레임 융합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55(2), 32-55.

김훈순. (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63-91.

김희진, 이수민. (2012). 언론에 재현된 여성 경제리더의 모습. **미디어, 젠더 & 문화**, 23, 79-110.

나은경, 이강형, 김현석. (2009). 댓글 읽기/쓰기를 통한 온라인 소통이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 **한국언론학보**, 53(1), 109-132.

나은경, 이준웅. (2008). 댓글 문화 연구: 온라인 뉴스 이용 양태의 변화와 담론 공중의 의미. 서울: 한국언론재단.

나은영. (2006).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2(1), 93-127.

남상우, 권오석. (2008). 인쇄매체에서의 젠더 중심화와 주변화: 일간신문 스포츠 지면의 사진량과 배치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4), 827.

남상우, 김한주, 고은하. (2010). 국민 여동생에서 국민 영웅으로: 김연아“영웅” 만들기와 미디어의 담론전략.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2), 61.

문옥표. (1996). 가족내 여성지위의 변화. **정신문화연구**, 19(2), 59-78.

박노일, 한정호, 홍기훈. (2007). 여성 정치후보자의 미디어 프레임에 따른 남녀 수용자 인식 차이 연구. **한국언론학보**, 51(2), 256-282.

박선희. (2014). SNS 뉴스 소통: 다중성과 구술성.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9(2), 37-73.

박성호. (2003).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7(1), 75-113.

- 박용옥. (1988). 개회사. **한국여성학**, 4, 5-6
- 박지영. (2007). 초국가적 미디어 생산물 소비의 즐거움과 전 지구화시대의 젠더 정치학. **미디어, 젠더 & 문화**, 7, 79-127.
- 방준식. (2014). '다매체다채널시대' 스포츠신문 산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3(3), 91-106.
- 방지선. (2000). 한국여성체육의 발전 과정 및 참여 장애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4(2), 87-97.
- 백선기. (1997). 우리 언론의 남·북 관련 사안 보도태도의 문제점. **저널리즘 비평**, 21, 40-41.
- 서경화, 김석기. (2012). 젠더론과 여성스포츠 -올림픽경기 중심으로-.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3), 129.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출판.
- 손환, 황의룡. (2001). 이화체육이 한국근대체육 발전에 미친 영향.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40(3), 3.
- 송용희. (2006). 한국 유력 일간지와 정치적 행위자 간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 - 2004 년 국가보안법 논쟁분석을 통한 취재원 연구 및 1, 2 차 규정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언론과 사회**, 14(1), 43-78.
- 송형석. (2006). **함께 읽는 체육·스포츠 이야기**.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안동근. (1998). 황색 저널리즘의 회귀. **저널리즘 비평**, 25, 52-55.
- 안미현. (2008). 여성 주체의 말하기와 젠더연구로서의 수사학. **수사학**, 9, 90-111.
- 양정혜. (2002). 대중매체와 여성 정치인의 재현. **한국언론학보**, 46(2), 452-484.
- 오동섭. (2006). 근대 독일 체조체계의 변화와 체육교육의 이념. **체육학회지**, 11(2), 167.
- 오미영. (2011). 인터넷 여론과 소통의 집단 극화. **현상과인식**, 35(3), 39-58.
- 오윤선. (2000). 올림픽경기의 여성스포츠 참여 100년사에 관한 고찰. **한**

- 국사회체육학회지, 14, 105-118.
- 월영신, 정희준. (1999). 페미니즘과 여성스포츠.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3(2), 223-237.
- 유선영. (2004). 젠더화된 주체의 일차원적 그리고 다중적 타자인식. 미디어, 젠더 & 문화, 1, 79-116.
- 유희경. (1981). 선사시대에 있었을 우리 민족복식을 생각하며. 복식, 5, 7-11.
- 이나영. (2017).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의 원리. 미디어, 젠더 & 문화, 32(4), 71-99.
- 이동근. (2004).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다양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언론학보, 48(4), 218-242.
- 이상기. (2011). 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56, 26-47.
- 이상률, 이준웅. (2014). 프레임 경쟁에 따른 언론의 보도 전략. 한국언론학보, 58(3), 378-407.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5-33.
- 이숙인. (2006). 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 정신문화연구, 29(1), 333-368.
- 이은주, 장윤재. (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3(4), 50-71.
- 이재경. (2008). 한국의 저널리즘과 사회갈등. 커뮤니케이션 이론, 4(2), 48-72.
- 이정기. (2011).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저항적 (대안적)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8, 73-109.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85-153.
- 이지영. (2014). 조선시대 성 통제에 대한 보고. 인문논총, 71(4), 303.

- 이현정, (2010), 한국 여성체육사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27-35.
- 이희영, 김정기. (2016).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뉴스프레임의 유형. **한국언론학보**, 60(4), 7-38.
- 장성수. (2004). 후기 로마와 중세체육에 대한 역사철학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3(2), 3-12.
- 장성수. (2007). 체육의 경쟁성에 대한 철학적 이해. **한국체육학회지**, 46(4), 39-50.
- 정경아. (2001). 차별의 심리적 기제로서의 성 고정관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69-85.
- 정준영. (2011). **스포츠, 그 열광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정현, 장익영, 이종영. (2014). 손연재 선수의 스타화 과정에서 나타난 신문기사의 보도형태와 보도내용의 관계: 김연아 선수와의 비교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3(2), 93-107.
- 정희철, 이창호. (2007).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51(6), 84-110.
- 조경원. (1998). 개화기 여성교육론의 양상 분석. **교육과학연구**, 28, 23-42.
- 조규상. (2003). 여성스포츠 선수에 대한 미디어 스포츠의 성차별적 보도 경향 비판. **한국스포츠리서치**, 14(6), 617.
- 조성식. (2003). 성평등을 위한 장(場)으로서의 스포츠변화. **한국체육학회지**, 42(4), 247-257.
- 조연하, 김경희, 정영희. (2006). ‘여성 1호’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보도의 프레임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7(2), 166-195.
- 조혜정, 신옥희, 이인호, 한왕상. (1986).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한국여성학**, 2, 136-217.
- 최민재. (2005). TV 뉴스의 영상구성에 대한 패러다임 연구. **방송통신연구**, 323-349.
- 최순양. (2016).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인식의 왜곡, 그 정점의 강남역살인사건. **한국여성신학**, 83, 14-26.

- 하문선, 김지현. (2013). 초기 여자청소년의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4(3), 345-368.
- 하승희, 이민규. (2012). 북한주민 생활 실태에 관한 국내 신문보도 프레임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22-241.
- 하응용. (2004). 고대 그리스세계의 여성체육. *한국체육학회지*, 43(3), 15-26.
- 하정희, 손환. (2014). 구한말 학교체육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3(3), 47-56.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지부. (1995). 신문속의 여성소외. *계간 지역사회*, 21, 111-123.
- 허명숙. (2007). 전문직 여성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7, 5-45.
- 현경미, 김원용. (2005). 언론의 여성 정치인 관련 보도 프레임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 38-72.
- 홍승후. (2016). 소치 동계 올림픽 신문보도의 내용 분석: 성편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5(1), 555-567.
- 홍지아. (2017).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한국언론정보학보*, 83, 186-218.
- 홍지은, 김매이, 임용석. (2016). 대학생들의 젠더인식에 따른 여가스포츠 구분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0(4), 95.
- 홍지은, 임용석. (2016). 여대생의 “남성 스포츠”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0(1), 15.
- Adams, E. M., & Goffman, Erving. (1979).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39(4), 601.
- Adams, T. M., & Fuller, D. B. (2006). The Words Have Changed but the Ideology Remains the Same: Misogynistic Lyrics in Rap Music. *Journal of Black Studies*, 36(6), 938-957.
- Andrews, K. T., & Neal, C. (2010). Making the News: Movement

- Organizations, Media Attention, and Public Agend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 841-66.
- Ashley, L., & Olson, B. (1998). Constructing Reality: Print Media's Framing of the Women's Movement, 1966 to 1986.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2), 263-277.
- Bairner, A., & Dong-Jhy, H. (2011). Representing Taiwan: International sport,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Republic of China,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46(3), 231-248.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26.
- Billings, A., Xu, Q., Angelini, J. R., & Macarthur, J. (2018). Lost in Translation—and Transmission: Contrasting Chinese and U.S. Gymnastics Television Coverage in the 2016 Rio Olympic Games. *Communication Reports*, 31(3), 159-173.
- Billings, A. C. (2007). From Diving Boards to Pole Vaults: Gendered Athlete Portrayals in the “Big Four” Sports at the 2004 Athens Summer Olympics.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72(4), 329-344.
- Billings, A. C., & Eastman, S. T. (2003). Framing Identities: Gender, Ethnic, and National Parity in Network Announcing of the 2002 Winter Olympics. *Journal of Communication*, 53(4), 569-586.
- Billings, A., MacArthur, B., & Smith. (2014). (Re)Calling London: The Gender Frame Agenda within NBC's Primetime Broadcast of the 2012 Olympiad.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1(1), 38-58.
- Billings, Y. (2015). Comparing Flagship News Programs: Women's Sport Coverage in ESPN's SportsCenter and FOX Sports 1's FOX Sports Live. *Electronic News*, 9(1), 3-16.
- Bissell, K. L., & Duke, A. M. (2007). Bump, Set, Spike: An Analysis of Commentary and Camera Angles of Women's Beach Volleyball During the 2004 Summer Olympics. *Journal of Promotion Management*, 13(2),

35-53.

Brescoll, V., & Lafrance, M. (2004). The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Newspaper Reports of Research on Sex Differences. *Psychological Science, 15*(8), 515-520.

Broch, T. B. (2016). Intersections of Gender and National Identity in Sport: A Cultural Sociological Overview. *Sociology Compass, 10*(7), 567-579.

Bruce, T., Hovden, J., & Markula, (2010). Content analysis, liberal feminism and the importance of mapping the media terrain. *Sportswomen at the Olympics*, Netherland: Brill Publications.

Bruce, T. (2016). New Rules for New Times: Sportswomen and Media Representation in the Third Wave. *Sex Roles, 74*(7), 361-376.

Butt, D. S. (1987). *Psychology of sport : the behavior, motivation, personality, and performance of athletes*. New York : Reinhold.

Chadha, K., & Koliska, M. (2014). Newsrooms and Transparency in the Digital Age. *Journalism Practice, 1*-15.

Chatman, S. (2003).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역). 서울: 푸른사상.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0).

Coche, R., & Tuggle, C. A. (2016). The Women' s Olympics? A Gender Analysis of NBC' s Coverage of the 2012 London Summer Games. *Electronic News, 10*(2), 121-138.

Cooky, C., Messner, M. A., & Musto, M. (2015). It's dude time!: A quarter century of excluding women's sports in televised news and highlight shows. *Communication & Sports, 3*(3), 209-234.

Covert, A., & Wasburn, C. (2007). Measuring Media Bias: A Content Analysis of Time and Newsweek Coverage of Domestic Social Issues, 1975-2000. *Social Science Quarterly, 88*(3), 690-706.

Crossman, J., Hyslop, , & Guthrie, B. (1994). A content analysis of the sports section of Canada's National newspaper with respect to gender

- and professional/amateur statu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29(2), 123-132.
- Dan, S., & Elliott, W. R. (1982). Television's influence on social reality. *Quarterly Journal of Speech*, 68(1), 69-79.
- Deuze, M. (2005). What is journalism?: Professional identity and ideology of journalists reconsidered. *Journalism*, 6(4), 442-464.
- Duncan, M. C. (1990). Sports photographs and sexual difference: Images of women and men in the 1984 and 1988 Olympic Games. *Sociology of Sport Journal*, 7(1), 22-43.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17). Mission and role of the IOC. *Olympic Charter*, 22-23.
- Duncan, M. C., Messner, M. A., Williams, L., & Jensen, K. (1994). Gender stereotyping in televised sports. *Women, sport, and culture*, 249-272.
- Roeh, I. (1989). Journalism as storytelling, coverage as narrativ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3(2), 162.
- Edward M. (1989). Mass Media And Sport: Influences On The Public. *Physical Educator*, 46(1), 52.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ntman, R. M. (2007). Framing bias: Media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163-173.
- Fairbairn, J., & Dawson. M. (2013). Canadian news coverage of intimate partner homicide: analyzing changes over time. *Feminist Criminology*, 8(3), 147-176.
- Fiske, S. T., & Glick, P. (1999). The Ambivalence Toward Men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Beliefs About 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3(3), 519-536.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Gamson, W. A., Croteau, D., Hoynes, W., & Sasson, T. (1992). Media imag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373.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Gerbner, G. (1998). Cultivation analysis: An overview.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3), 175-194.
- Gina, D. (1994). Chilly scenes of the 1992 Winter Games: The mass media and the marginalization of female athletes. *Sociology of Sport Journal*, 11(3), 275-288.
- Greenwald, M. S. (1990). Gender Representation in Newspaper Business Sections. *Newspaper Research Journal*, 11(1), 68-74.
- Greer, J. D., & Jones, A. H. (2012). A Level Playing Field?: Audience Perceptions of Male and Female Sports Analys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s*, 6(8), 67-79.
- Haig, D. (2004). The Inexorable Rise of Gender and the Decline of Sex: Social Change in Academic Titles, 1945-2001.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3(2), 87-96.
- Hargreaves, J. (2004). Querying Sport Feminism: Personal or Political?. *Sport and Modern Social Theorists*, 187-205.
- Harlim, S., & Meyers, M. (2010). News coverage of violence against Muslim women: A view from the Arabian Gulf. *Communication, Culture & Critique*, 3(1), 85-104.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17). Mission and role of the IOC. *Olympic Charter*, 22-23.
- Iyenga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 James, K. H., & Douglas, M. M. (2001). A multiperspectival approach to framing analysis: A field guide. *Framing Public Life*, 22.
- Jinxia, D. (2005). Women, Nationalism and the Beijing Olympics: Preparing for Glo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2(4), 530-544.
- Jones, R., Murrell, A. J., & Jackson, J. (1999). Pretty Versus Powerful in the Sports Pages: Print Media Coverage of U.S. Women's Olympic Gold Medal Winning Teams.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23(2), 183-192.
- Kane, M. J., Lavoie, N. M., & Fink, J. S. (2013). Exploring Elite Female Athletes' Interpretations of Sport Media Images: A Window Into the Construction of Social Identity and "Selling Sex" in Women's Sports. *Communication & Sport*, 1(3), 269-298.
- Koivula, N. (1995). Ratings of Gender Appropriateness of Sports Participation: Effects of Gender-Based Schematic Processing.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33(7), 543-57.
- Lana, F. R., & Kimberlie, K. (1991). Woman as Sign in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41(1), 8-23.
- Len-Ríos, M. E., Rodgers, S., Thorson, E., & Yoon, D. (2005). Representation of Women in News and Photos: Comparing Content to Percep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55(1), 152-168.
- Lever, W. (1993). Mass Media and the Experience of Sport. *Communication Research*, 20(1), 125-143.
- Licen, B. (2008). Cheering for 'our' champs by watching 'sexy' female throwers: Representation of nationality and gender in Slovenian 2008 Summer Olympic television coverag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8(4), 379-396.

- Lumby, C., Caple, H., & Greenwood, K. (2010). Towards a Level Playing Field: sport and gender in Australian media.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 Macarthur, P. J., Angelini, J. R., Billings, A. C., & Smith, L. R. (2016). The dwindling Winter Olympic divide between male and female athletes: the NBC broadcast network's primetime coverage of the 2014 Sochi Olympic Games. *Sport in Society, 19*(10), 1556-1572.
- Mackay, S., & Dallaire, C. (2009). Campus Newspaper Coverage of Varsity Sports: Getting Closer to Equitable and Sports-related Representations of Female Athlete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44*(1), 25-40.
- Mackay, S., & Dallaire, C. (2013). Skirtboarder net-a-narratives: Young women creating their own skateboarding (re)presentation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48*(2), 171-195.
- Matteo, S. (1986). The effect of sex and gender-schematic processing on sport participation. *Sex Roles, 15*(7), 417-432.
- Maynard, M., & Hanmer, J. (1987).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London: Macmillan press Ltd.
- McBride, K., & Rosenstiel, T. (2013). *The new ethics of journalism: Principles for the 21st century*.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 McDermott, L. (2018). Online news comments as a public sphere forum: Deliberations on Canadian children's physical activity habit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53*(2), 173-196.
- Mclean, J., & Maalsen, S. (2013). Destroying the joint and dying of shame? A geography of revitalised feminism in social media and beyond. *Geographical Research, 51*(3), 243-256.
- Metheny, E. (1965). Symbolic forms of movement: The feminine image in sports. *Connotations of movement in sport and dance*. Dallas: W. C. Brown Co. Publishers.

- Meyers, M. (2004). African American women and violence: Gender, race, and class in the news.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21(2), 95-118.
-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1), 55-75.
- Pfister (1987) 'Women in the Olympics (1952-1980): An analysis of German newspapers (beauty awards vs. gold medals), *Olympic Movement and the Mass Media*.
- Phillips J. C., & Carter, E. L. (2010). Source of information or "dog and pony show"? Judicial information seeking during U.S. Supreme Court oral argument, 1963-1965 & 2004-2009. *Santa Clara Law Review*, 50(1), 79-181.
- Pirinen, Riitta (1997)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2(3), 239-249
- Plaza, M., Boiché, J., Brunel, L., & Ruchaud, F. (2017). Sport = Male... But Not All Sports: Investigating the Gender Stereotypes of Sport Activities at the Explicit and Implicit Levels. *Sex Roles*, 76(3), 202-217.
- Potter, W. J. (1985). Gender Representation in Elite Newspaper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62(3), 636-640.
- Robert, M. E.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Rogers, S., & Thorson, E. (2003). A Socialization Perspective on Male and Female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3(4), 658-675.
- Ross, K., & Carter, C. (2011). Women and news: A long and winding road. *Media, Culture & Society*, 33(8), 1148-1165.
- Scheufele, D.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 Semetko, H., & Valkenburg, P.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Shor, E., Rijt, A., Ward, C., Askar, S., & Skiena, S. (2014). Is There a Political Bias? A Computational Analysis of Female Subjects' Coverage in Liberal and Conservative Newspapers. *Social Science Quarterly*, 95(5), 1213-1229.

Stephen D. R., Oscar, H. G., & August, E. G. (2001).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Taylor, R. (2009). Slain and slandered: A content analysis of the portrayal of femicide in crime news. *Homicide Studies*, 13(1), 21-49.

Thorpe, H., Toffoletti, K., & Bruce, T. (2017). Sportswomen and social media: Bringing third-wave feminism, postfeminism, and neoliberal feminism into conversation.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41(5), 359-383.

Tuchman, G. (1978). The symbolic annihilation of women by the mass media. *Culture and Politics*, 150-174.

Turner, J. C., Oakes, C., Haslam, S. A., & McGarty, C. (1994). Self and Collective: Cognition and Social Contex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454-463.

Ueno Chizuko. (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서울: 은행나무.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0).

Urquhart, J., & Crossman, J. (1999). The Globe and Mail Coverage of the Winter Olympic Games: A Cold Place for Women Athletes.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23(2), 193-202.

Valgeirsson, S. (1986).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Newspaper Sports Section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21(2), 131-139.

Vincent, J., Imwold, C., Masemann, V., & Johnson, J. T. (2002). A Comparison of Selected 'Serious' and 'Popular' British, Canadian,

- and United States Newspaper Coverage of Female and Male Athletes Competing in the Centennial Olympic Games: Did Female Athletes Receive Equitable Coverage in the ‘Games of the Women’ ?.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7(3), 319–335.
- Watanabe, N. M., Nie, T., & Yan, G. (2013). Evolution of Sport-Broadcast Commentary: The Case of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Communication*, 6(3), 288–311.
- Wolter, S. (2015). A Quantitative Analysis of Photographs and Articles on espnW: Positive Progress for Female Athletes. *Communication & Sport*, 3(2), 168–195.
- Xu, Q., Billings, A., & Fan, M. (2018). When Women Fail to “Hold Up More Than Half the Sky” : Gendered Frames of CCTV’ s Coverage of Gymnastics at the 2016 Summer Olympics. *Communication & Sport*, 6(2), 154–174.
- Xu, Q., Billings, A., Scott, O., & Lewis, M. (2017). Gender differences through the lens of Rio: Australian Olympic primetime coverage of the 2016 Rio Summer Olympic Game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 Xu, Q., Billings, A., & Fan, M. (2018). When Women Fail to “Hold Up More Than Half the Sky” : Gendered Frames of CCTV’ s Coverage of Gymnastics at the 2016 Summer Olympics. *Communication & Sport*, 6(2), 154–174.
- Zamarripa, M. X., Wampold, B. E., & Gregory, E. (2003).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and Anxiety: Clarification and Generalizability to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33–338.
- Zoch, L. M., & Turk, J. V. (1998). Women making news: gender as a variable in source selection and us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4), 76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86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59>

<https://deadspin.com/why-some-winter-olympic-sports-are-faster-higher-str-1823153425>

<https://www.newsweek.com/women-winter-olympics-have-always-had-fewer-chances-compete-and-science-says-808400>

<https://www.sportanddev.org/en/article/news/15-rules-sports-media-representation-female-athletes>

<https://www.theguardian.com/sport/ng-interactive/2018/feb/08/winter-olympics-womens-long-race-to-parity>

<https://www.wsj.com/graphics/2018-winter-olympics-history-of-female-games/>

Abstract

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Coverage for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Gender Differences

Moon Young

Global Sports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5 selected ‘Liberal’ and ‘Conservative’ newspapers in Korea to compare how they covered female and male athletes during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ll the articles depicting athletes’ performance during PyeongChang Olympics were analyzed for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Findings in qualitative analysis are as followed: even though female athletes are increasingly portrayed as serious athletes in recent newspapers with more focus on the athletic abilities, female athletes were persistently portrayed focused on non-sports related aspects such as personal lives, appearances, and attractiveness. Also,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d that female and male athletes competing in the PyeongChang Olympics received an equitable amount of coverage, and political bias of the newspaper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gendered media coverage. Reasons for the equitable amount of newspaper coverage of female athletes can be explained by provisional nationalism over the traditional gendered fram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outlined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Content Analysis, Sports Media, Olympic, Gender.